



[산업] 현대차 '더 뉴 산타페' 신차급 탈바꿈 08



Economy

코스피	2108.33 (+14.85)	코스닥	737.97 (+3.28)
금리 (국고채 3년)	0.842 (0.000)	환율 (원-달러)	1203.00 (+4.40) (6.30)

# 또 터졌다, 사모펀드 사고... '플랫폼'도 환매 중단

(행동주의 펀드)

'애플우역금용 1Y' 2·3·4호 환매연기 코로나19發 글로벌 무역 부진 영향 최악의 맨 펀드보험으로 원금 회수

국내 최초 '주주행동주의'로 인지도를 올린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플랫폼파트너스)이 사모펀드 환매를 연기했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다. 사모펀드 환매 연기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

지난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플랫폼파트너스는 지난 4월 만기가 도래한 '더플랫폼 아시아우역금용 1Y' 2호, 3호, 4호 환매를 잇따라 연기했다. 현재까지 추산되는 환매연기 규모는 500억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무역 부진이 환매 연기의 이유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해당 펀드는 싱가포르 기업들의 무역 금융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무역량이 줄어들면서 해당 매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플랫폼파트너스 관계자는 "싱가포르 기업들의 디폴트 상태는 아니다"면서 "최근 환매 연기가 발생한 다른 운용사와는 다르게 실사를 모두 진행한 기초자산이고 부실자산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파트너스는 최악의 경우 펀드가 들어둔 보험으로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가 관건이다. 코로나19가 천재지변인 만큼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플랫폼파트너스는 지난해 11월에도 환매 중단 사태를 겪었다. '플랫폼파트너스 액티브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2호' 펀드의 환매가 일부 무기한 연기된 것.

액티브메자닌 12호 펀드의 설정액은 55억원 수준이다. 자산 대부분을 코스닥 상장사 코다코 등이 발행한 메자닌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코다코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었다. 결국 펀드 만기일인 지난해 11월 끝내 환매는 이뤄지지 못했다.

다행히 코다코는 2019년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재개된 상태지만 여전히 워크아웃 중이어서 회수시기를 예단할 수 없는 상태다.

플랫폼파트너스는 지난 2018년 맥쿼리인프라(MKIF) 운용사 맥쿼리자산운용이 받아가는 보수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국내 첫 주주행동주의를 실시한 바 있



천안사업장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자회사인 세메스 천안사업장을 찾아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생산 공장을 둘러본 뒤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삼성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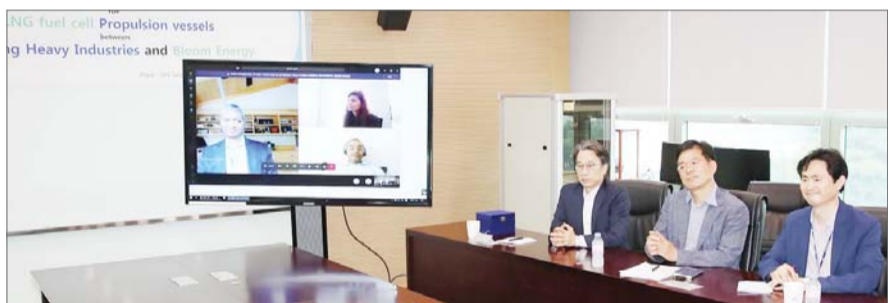
다. 당시 플랫폼파트너스는 MKIF의 운용보수 인하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쌓인 신뢰를 기반으로 시장의 자금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최근 두 차례 이어진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는 모양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

계자는 "국내 첫 주주행동주의로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운용사로 각인됐으나 일련의 사모펀드 환매 연기로 신뢰 회복이 중요해졌다"면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에 따라 플랫폼파트너스의 이미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파트너스는 최악의 경우 펀드가 들어둔 보험으로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보험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5면에 계속>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정호현 삼성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미 블룸에너지와 연료전지 선박 개발 협약 체결 기념행사를 언택트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삼성중, 연료전지 선박 개발 속도

美 블룸에너지와 공동개발 협약 미래 친환경 선박시장 선점나서

삼성중공업이 미래 친환경 선박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연료전지 적용 선박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

삼성중공업은 세계적인 연료전지 제조사인 미국의 블룸에너지와 선박용 연료전지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JDA)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정호현 삼성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전무)과 스리달 블룸에너지 사장이 거제조선소와 캘리포니아 블룸에너지 본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협약 체결 기념 행사를 비대면(언택트)으로 진행했다.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상용화에 성공한 블룸에너지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주력 제품인 액화천연가스(LNG)선과 셔틀탱커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 핵심기술을 2022년까지 추가 확보해 미래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 선점을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양사는 지난해 9월 노르웨이 독일 선급인 DNV GL로부터 연료전지 적용 원유운반선에 대한 기본설계 승인을 세계 최초로 획득한 바 있다.

연료전지는 연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기와 같은 장치로, 전기를 저장해 사용하는 배터리와는 차이가 있다.

선박 온실가스 배출을 2025년까지 2008년 대비 30% 이상 감축하도록 강제된 국제해사기구(IMO)는 2018년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인 MEPC 제 72차 회의에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강력히, 그리고 조속히 시행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 40%, 2050년 70%까지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양성호 기자 ysw@

## 최저임금 16.4% 인상, GDP 4% 낮췄다

(2018년 상승률)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 "기회평등이 결과평등보다 경제 살리는데 더 효과적 내년 최저임금 동결 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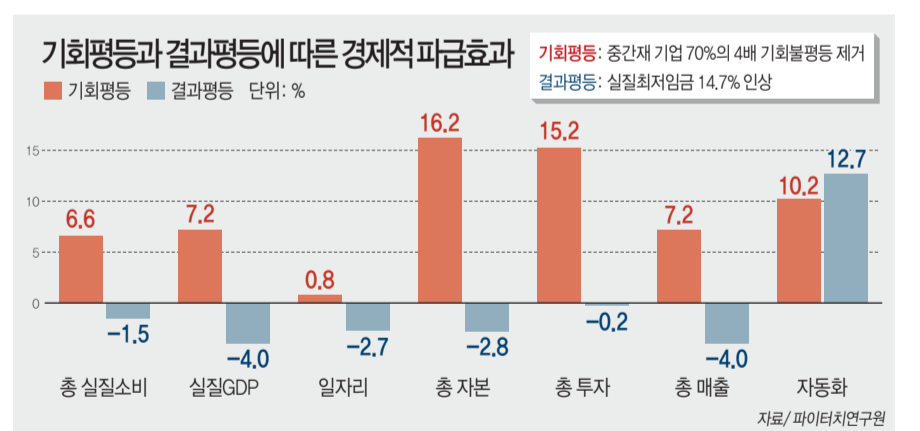
2018년 당시 올린 최저임금 16.4%(실질인상률 14.7%)가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4% 낮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 '결과평등'을 추구하는 것보다 공정한 경제를 통해 모든 기업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기회평등'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조언이다.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 내년 최저임금도 동결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지난 30일 내놓은 '기회평등과 결과평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당시 실질최저임금을 14.7% 올린 결과 실질GDP가 4%, 금액으로는 72조원 어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도 55만 개(2.7%) 사라진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 일자리 감소 및 자동화 증가→최종재 생산 감소→최종재 소비 감소 등의 파급경로 때문이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기회의 평등'을 통한 공정한 경제 생태계에 주목했다. ▲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소모



성자재 구매대행사업 등) ▲공기업 자회사의 모기업 과생사업 독식(청소 및 경비사업, 시설관리사업 등) ▲일감을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 제공 ▲플랫폼 기업이 자회사를 통한 앱 사업 독식 등이 대표적인 기회 불평등 사례로 여기서 '불평등'을 제거할 경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포털회사들이 자체 심사를 거쳐 특정 언론사 기사만 '실시간 뉴스' 파트에 노출시켜주는 것도 불평등의 또 다른 사례로 꼽았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2018년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간재 기업의 70%는 나머지 30%의 기업(특정기업)에 비해 기회가 4배 정도 불평등한 '약소기업'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 약소기업에게 차별을 없애 동일한 기회를 주면

실질GDP는 7.2%(130조원) 상승하고, 일자리는 0.8%(17만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기회불평등 제거→차별받았던 약소기업의 일자리·자본·생산 증가→약소기업수 증가→특정기업 일자리·자본·생산 감소→약소기업 생산 중간재·자동화(로봇) 증가→최종재 생산 증가→최종재 소비 증가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기업 관련 모든 경제정책을 재검토해 기회 평등 관점에서 전면 재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해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되, 2022년부터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 시 '물가상승률+실질 GDP 성장률+소득분배조정률'을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멈추면 미래 없다”... JY, 반도체 장비업체 현장경영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세메스’ 방문**  
중장기 사업 전략 등 점검·논의  
“불확실성 끝 알수없어... 갈 길 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장 경영을 재개했다. 반도체 산업 핵심인 장비업체 세메스를 찾아 중장기 미래 먹거리 확보를 예고했다. 6월 3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천안 세메스 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생산공장을 둘러보고 중장기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 김기남 부회장과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박학규 DS부문 경영지원실장과 강호규 반도체연구소장 등 경영진과 동행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진과 함께 ▲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진들과 함께 세메스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김기남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강창진 세메스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천안 세메스 사업장을 방문해 배식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

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산업 동향 ▲설비 경쟁력 강화 방안 ▲중장기 사업 전략 등을 논의했다. 제조장비 생산공장을 살펴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세메스는 1993년 삼성전자가 설립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설비제작 전문 기업이다. 경기 화성과 충남 천안 등 국내 두 곳의 사업장에 2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 오스틴과 중국 시안에도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불확실성의 끝을 알 수 없다. 갈 길이 멀다. 지치면 안된다. 멈추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육성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세메스를 찾았다고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당시 일본으로 직접 출장을 다녀온 직후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단기 대책 및 중장기 대응 전략을 논의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당시 “흔들리지 않고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자”고 강조하며, 사장단에게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시나리오 경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삼성전자 반도체 및 무선통신 사장단과 연달아 간담회를 가진 이후, 19일에는 반도체 연구소, 23일에는 생활가전사업부를 찾아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등 위기 극복 및 미래 준비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한-EU, 화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총무실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칠말팔초’ 폭염대비 역대최대 전력 확보

(7월말~8월초)

산업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대책 저소득 취약가구 전기료 지원 상향

올해 여름 예년보다 더운 날씨에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역대 최대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해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기존 전망’으로 8730만kW(킬로와트), ‘상한 전망’으로 9080만kW 안팎으로 예상했다. 올여름 기온은 작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산업용 전기 수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수치다. 여름철 전력수요는 보통 기온에 더 큰 영향을 받는데, 예상 기온을 단일치로 할 경우 2018년처럼 111년 만의 폭염

이 닳으면 전력 수요 전망이 빗나갈 수 있어 작년부터 기존 전망과 상한 전망으로 나눠 예측하고 있다. 올해 기준 전망은 평균 29.1도, 상한 전망은 평균 30.1도다. 정부는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하는 시기는 7월 다섯째 주~8월 둘째 주 사이로 예상하고, 3주간 전력 수요 피크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피크 기간 발전 공급능력은 1억19만kW로, 여름철 수급 대책 기간 역대 최고 수준을 확보했다. 이 기간 공급능력에서 최대 전력수요를 뺀 예비력은 작년보다 54% 증가한 939만kW 이상으로 전망된다. 939만kW는 지난해 전력 피크 때 우리나라 전체 주택용 냉방 수요의 1.2배만큼 추가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이상기온이나 발전소 불시정지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729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확

보해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늦더위에 대비해 7월6일~9월18일까지 총 75일간 운영한다. 정부는 저소득 취약가구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에 신설된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지급할 방침이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을 작년 7000원에서 올해 9000원으로 올린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할인 한도를 평상시 1만6000원에서 7~9월 2만원으로 늘리고, 4~9월 전기요금에 대한 3개월간 납부 유예도 한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상황임을 고려해 공공부문은 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부문은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적정 실내온도 제한 등 수요 관리 이행 실태 점검 대상을 150곳에서 240곳으로 확대하고, 점검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

## 제조업 체감경기 5개월만에 반등

한은,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특히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던 제조업 업황이 전자 영상 통신장비와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5개월 만에 반등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포함한 민간의 체감경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경제심리지수도 올랐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0년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이달 전 산업업황 BSI는 전월 대비 3포인트(P) 상승한 56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뒤 2개월 연속 오름세다.



제품 구매비용 환급정책,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정책효과와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수출부진 완화 등의 영향으로 업황 BSI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제조업체들은 한 달 후에는 기업경기가 더욱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7월 업황 전망 BSI는 지난달과 비교해 2P 오른 51을 기록했다. 이달과 마찬가지로 다음달에도 전자 영상 통신장비가 전달보다 8P오르고 전기장비는 12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나유리 기자

## 금융위 ‘환매중단’ 옵티머스운용, 영업정지 명령

투자자 보호 일부업무 등은 제외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 정지 등의 조치명령을 내렸다. 검찰 수사 등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펀드관리 운용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펀드를 관리·운용하는데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모든 업무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을 영위하고, 46개 펀드, 5151억원을 운용하



옵티머스 자산운용. /연합뉴스

고 있다. 그러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현재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투자금액을 대부업체 등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부터 현장감사한 결과 펀드자금 중 2699억원이 이들 투자처로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운용 잔액의 절반 수준이다.

검찰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대신 부실 사모사채를 담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약 6개월간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이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해 투자자보호상 필요한 일부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금융당국은 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리인 선임기간은 업무정지기간과 같은 오는 12월 29일까지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한국타이어, 차남 조현범 3세 경영

# 누나 중립으로 '형제의 난' 없을 듯... 글로벌 M&A 모색

(조희원)

父 조양래 회장 지분 전량 인수  
글로벌 인수합병 등서 성과  
R&D, 시장 선도 의지 돋보여



(작은 사진)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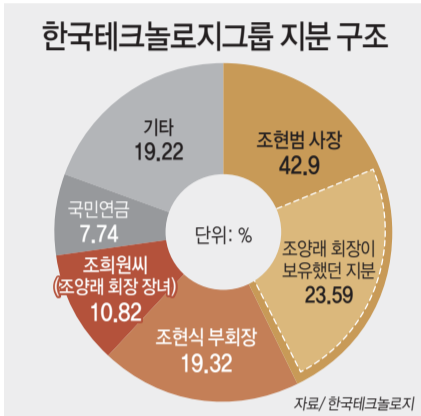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 사장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이끌 3세 경영인으로 조현범 사장이 낙점된 것이다.

조현범 사장은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한 뒤 13년만에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어 6년 뒤인 2017년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조현범 사장은 대표이사 취임 이후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 냈다.

◆조현범 사장 그룹 지분율 42.9% 확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이 지난 26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자신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59%를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매각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조현범 사장의 보유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은 19.31%에서 42.9%로 높아졌다. 형인 조현식 부회장은



19.32%, 누나인 조희원씨는 10.8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그룹 지주사로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한국아트라스비엑스, 한국네트웍스, 한국가엔

라이프 등 주력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그동안 조현범 사장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COO(최고운영책임자·사장)와 자회사인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사장을, 장남 조현식 부회장은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을 맡아 형제경영을 해왔다. 이번에 조양래 회장이 전격적으로 주식을 조현범 사장에게 블록딜 형태로 매각하면서 후계 구도를 분명히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현범 사장이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현식 부회장과 조희원씨의 지분을 합치면 30.14%가 되고 여기에 국민연금(7.74%)까지 합세하면 조현범 사장과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형제의 누나인 조희원씨가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영권 분쟁의 휘말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극적 M&A 통한 회사 경영 이끌어

조현범 사장은 대표이사 취임 이후 글로벌 M&A를 통해 그룹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조현범 사장은 2018년 독일 타이어 유통기업 '라이펜-물러'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라이펜-물러는 1966년 1호점 설립을 시작으로 독일 중남부 지역에서 44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타이어 전문 유통점이다. 연간 독일에서 판매하는 승용차용 타이어와 트럭, 버스용

타이어가 240만개에 달한다. 이를 통해 타이어 제조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통 비즈니스도 강화했다.

앞서 조현범 사장은 2017년 2월 호주 타이어 유통회사 '작스타이어스' 인수를 해 선진화된 유통 시스템을 도입,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글로벌 4000여개 유통채널에 도입하며 성공적인 인수 합병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제품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조현범 사장은 2018년 세계 최대 규모의 합성고무 기업인 '아란세오'와 고성능 타이어용 합성고무 기술 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타이어의 성능 향상을 위한 합성고무 원료 및 적용법을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디지털 프로토타입(시제품) 솔루션 기업인 '모텔솔루션'을 인수하는 등 제품 개발뿐 아니라 유통 채널 다각화 등 조현범 사장 체제 하에서 빠르게 체질개선을 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이상직 지분 포기에도 이스타 M&A 난기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직 “오너일가 의혹 사죄”  
제주항공 여전히 묵묵부답

제주항공과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오너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식 포기' 결단에도 M&A의 물꼬가 트이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달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 가족은 과거 불법 경영권 승계 등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2015년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된 이스타홀딩스는 100억원가량의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자금을 확보해 최대 주주로 올라선 바 있다.

그런데 현재 39.6%의 지분으로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이 의원의 자녀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33.3%)와 아들 이원준 씨(66.7%)에 의해 100% 소유한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며, 이스타항공이 불법 경영권 승계의 장으로 악용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사모펀드로부터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자금을 적법하게 마련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미 직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소재를 두고 협상에 난항을 빚던 제주항공과의 M&A 성사 여부는 더 불투명해졌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직원들에게 월급여의 40%만을 지급하고, 이후 무급으로 대응하며 약 250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이 있는 상태다. 이에 제주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지난달 29일 강서구 본사에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유상 경영본부장.

항공 측에서는 지난 5월 해당 체불임금에 대한 해소를 이스타항공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과의 협상도 부진한 상황에서, 오너일가에 대한 의혹까지 확산되자 이 의원은 '주식 헌납'을 타계책으로 삼고 나섰다. 지난 6월 29일 이스타항공은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인 이 의원 등 오너일가가 소유한 이스타항공 지분(39.6%)을 전부 이스타항공 측에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과 절차는 적법했고, 관련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오너일가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또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창업자의 초심과 애정으로 이스타항공이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지분 헌납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여전히 제주항공과의 M&A가 '시계제로'라는 데 있다.

이스타항공은 해당 지분의 매각으로 생길 410억원의 자금을 체불임금을 해소하는 데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주항공과의 최종 인수가 성사된 이후 해당 자금을 받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 의원의 지분 헌납 결단에 따른 제주항공 측의 입장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너일가의 지분 반납 결정에도,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아직까지 이스타항공의 입장 발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현재 상황 파악 중이다. 한 번도 6월말 등을 계약 종료 일이라고 말할 적이 없고, 공시에 보면 인수 종결은 양사가 합의하는 날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진양곤 “나도 옵티머스 피해자”

(에이치엘비 회장)

“사재출연으로 손실 없도록 할 것”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사진)이 최근 환매중단 사태로 논란이 된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고백했다. 회사가 피해를 볼 경우 사재를 출연해 손실을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진 회장은 지난달 2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해 수 백 억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고 운을 뗐다. 그의 고백 속엔 지난 4월 24일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이 NH투자증권을 통해 100억원, 6월 11일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에이치엘비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300억원을 위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에이치엘비의 IR(기업설명회) 원칙은 사실 그대로를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펀드의 '피해자'라는 것을 강조했다.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된다는 증권사와 운용사의 고지내용을 신뢰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피해사 재출연에 회사에 단 한 푼의 손실조차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이번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며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액 전액을 본인이 보유한 자사주를 회사에 위탁하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엔 철저하게 안정성 위주로 자금을 운용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회사 주요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개



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회장은 “원금 회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옵티머스펀드의 판매가 명백한 불법 부당행위인 만큼 전남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주주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진 회장도, 에이치엘비도 피해자인데 굳이 먼저 밝힐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불필요하게 주가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 관계자들조차 사재 출연을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여유자금을 가지고 자산운용을 하는 것은 기업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긍정적 목소리도 나온다. 투명 경영, 책임 경영 차원에서 주주와 소통하는 모습은 전통적인 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방식이라는 호평으로 해석된다. 사재출연까지 해서 기업의 손실을 막겠다고 나선 만큼 주주의 신뢰를 쌓아 장기적인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 에이치엘비 주가는 4% 이상 하락했다. 전일보다 4.54% 떨어진 9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송태화 기자 alvin@

# 제휴카드·전세기 운항·굿즈... 항공사, 현금창출 안간힘

## 대한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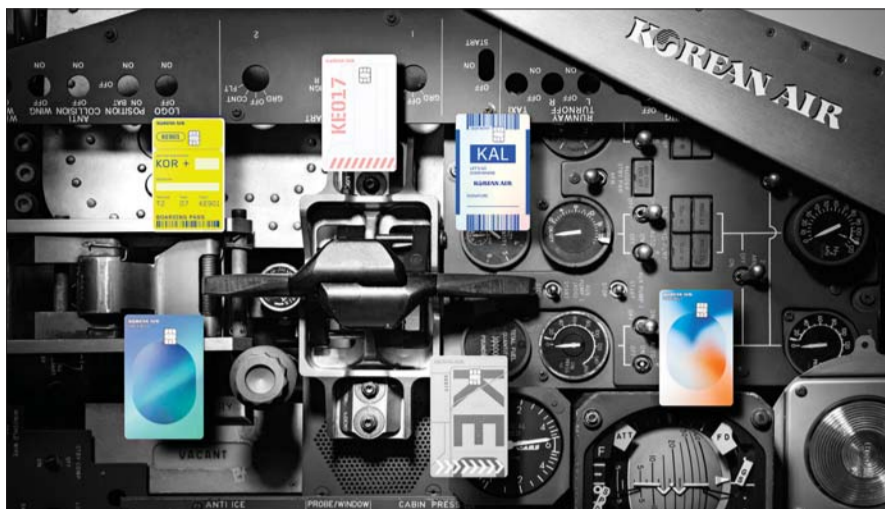
현대카드와 대한항공카드 출시

## 아시아나

교민 수송 등 전세기 운항 총력

## 제주항공

팬수 캐릭터 활용해 굿즈 마련



대한항공의 대한항공카드.

/대한항공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나섰다.

6월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현대카드와 손잡고, 국내 최초 항공사 신용카드인 '대한항공카드'를 출시했다. 대한항공은 자사의 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비행기가 최대 90% 가까이 멈춰서면서 유동성 위기에 놓이자 새로운 방법으로

모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항공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운항 노선이 줄어든 것은 물론, 수요도 대폭 줄면서 심각한 '현금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대한항공은 카드를 보유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더블 마일리지 적립 이벤트'를 7월 31일까지 응모받아 실시한다. 6월과 7월에 응모한 고객은 각각 7

월과 8월 카드 사용금액이 더블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또한 카드 보유 고객 중 카드 발급일 이후부터 추첨일 이전까지 누적 사용 금액이 50만원을 넘어 응모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항공권과 1만 마일리지 등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도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국제선을 운항할 수 없자, 교민

수송 등을 위한 '전세기' 수요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거점을 둔 글로벌 국내 기업과 교민, 유학생들이 출·입국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전세기 운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6월 한달간 아시아나항공은 전세기 운항으로 총 6930명을 수송했으며, 지난 3월 이후 입국이 불허됐던 베트남 나트랑 공항에 지난 6월 23일 현대미포조선 기술진을 태워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외국인의 입국 허가를 받아내기도 했다.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현재 유일하게 국제선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항공도 항공기 운항만으로 버티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제주항공은 자사의 친환경 홍보모델로 활동 중인 '팬수'를 활용한 모형비행기와 기획상품(굿즈) 출시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7월부터 팬수 모형비행기와 포토카드, 볼펜, 핀버튼, 스티커 등 상품을 제작해 기내 및 AK몰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AK몰에서

사전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주항공의 국제선·국내선 항공권과 팬수가 직접 사인한 팬수 모형비행기, JJ라운지 이용권 등 경품행사도 진행한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 항공사가 국내선도 많이 늘리고 있다"면서도 "국내선 운항이 실질적으로 수익성은 없다. 비행기가 뜰 때 고정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근대 항공기를 한 번 띄울 때마다, 변동비만 커버되면 어떻게든 매출을 발생시키는 게 낫다. 당장 유동성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내선을 더 많이 띄우려고 하는 분위기"라며 "국제선의 경우, 올 여름은 거의 힘들지 않을까 보여진다. 현지에서 열어줘야 하고, 국내에서 14일 자가격리 완화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국제선을 나가기가 아무래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KT, 車 부품사에 5G 스마트팩토리 코봇 상용화

# 협동로봇과 작업 '척척'... 불량 ↓ 생산성 ↑

근로자와 함께 어려운 동작 작업  
생산정보, 클라우드 통해 수집·관리



충북 제천에 있는 박원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가 KT 5G 스마트팩토리 코봇과 함께 작업하고 있다. /KT

KT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박원에 5G 스마트팩토리 코봇(Cobot, 협동로봇)을 구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박원은 자동차 부품에 쓰이는 초정밀 강구를 생산하는 제조사로, KT 5G 스마트팩토리 코봇의 첫 상용 도입 회사가 됐다.

KT는 약 2만3000㎡의 체천 박원 공장에 기업전용 5G 네트워크와 스마트팩토리 코봇을 구축하고, 작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KT 클라우드 기반 팩토리 메이커스 플랫폼에서 실시간 관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에 구축된 협동로봇이 근로자와 함께 어려운 동작을 작업해 근로 피로도를 줄이고, 오류와 불량 발생을 낮춰 작업 리드타임이 줄어드는 등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제

품의 정확한 중량을 측정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기존엔 근로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집계하던 생산정보를 KT 클라우드 기반 팩토리 메이커스 플랫폼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관리한다.

박원의 패키징 공정에 KT 5G 스마

트팩토리를 도입한 결과, 기존 작업 방식대로 했을 때 시간당 225박스를 생산했던 공정이 KT 5G 스마트팩토리 코봇을 도입하자 시간당 313박스로 증가했다. 또 박스당 작업 소요시간도 16초에서 11.5초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중진공, 정책자금 평가체계 中 小 企 위주 개편

3년 연속 300만 달러 이상 수출 기업  
정책자금심사서 기술사업성 평가 면제



최근 3년 연속 300만 달러 이상 수출한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더욱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들에겐 정책자금 심사시 기술사업성 평가를 면제해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중진공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책자금 평가 체계를 수출 중소기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1일부터 수출 하이패스트

랙을 도입하고 수출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강화한다. 기술사업성 평가 기준에서 수출 실적에 대한 평가 영향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지원 성과가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사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수출 버팀목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을 위해 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임금조사

생산직 평균일급 9만5837원

올해 상반기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서노임(일급)이 1년전에 비해 1.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1400 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30일 발표한 '2020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에 따르면 130개 조사직종 평균 일급은 9만5837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3월 기준) 평균 일급은 9만4631원이었다.

/김승호 기자

## 국내산업 생산·투자 5개월째 하락

# 재난지원금 효과에 소비는 상승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산업생산이 5개월째 하락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1월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11년 4개월만에 최저다. 다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소비는 2개월 연속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전월대비 1.2% 감소했다. 지난해 9월(-0.2%) 이후 증가하다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 이후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 통계청 5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제조업 평균가동률 11년 4개월만에 최저  
소매판매액지수 전월비 4.6% 상승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6.5 기록

분야별로 광고업 생산이 전달보다 6.7%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도체는 10.8% 증가했으나 해외 판매수 위축에 따라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생산 감소로 자동차는 21.4%나 줄었다.

자동차 관련 금형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등의 생산 감소로 기계장비 생산도 12.9% 감소했다. 지난달 자동차생산지수는 63.4로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효과로 반등했던 3월(93.6)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고, 2009년 5월(60.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보다 6.9% 감소했다. 반도체, 기타운송장비, 의약품 등이 증가했지만 자동차,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이 감소했다.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을 의미하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4.6%포인트 하락한 63.6%로 11년 4개월 전인 2009년 1월(62.8%) 이후 최저치다.

제조업 출하지수는 90.0으로 전월보다 6.6% 감소해 2010년 3월(89.3%) 이후 가장 낮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은 128.6%로 전월보다 8.6%포인트 상승, 1998년 8월(133.2%) 이후 21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2.3% 증가했다. 섬유·의복·신발 및 가죽 제품 소매업, 생산 용품 도매업 중심으로 소매가 3.7% 증가했고, 숙박·음식점 등도 전월대비 14.4% 증가했다. 다만 서비스업 생산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효과에 따라 전월 대비 4.6% 상승해 코로나19 발생 전 수준을 회복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7.6%), 의복 등 준내구재(10.9%), 차량 연료 등 비내구재(0.7%) 판매가 모두 증가했다.

소매업태별로 대형마트(-10.6%), 면세점(-0.5%)은 줄었으나 전문소매점(10.5%), 승용차·연료소매점(7.7%), 무점포소매(4.9%), 백화점(4.4%), 슈퍼마켓·잡화점(2.2%), 편의점(3.7%)은 늘었다. 재난지원금 효과로 슈퍼마켓·잡화점은 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투자는 감소세가 커지고 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16.1%) 및 정밀기기 등 기계류(-1.7%) 투자가 줄어 전월보다 5.9% 감소했다. 지난 1월(-6.8%)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도 토목(-8.5%), 건축(-2.4%) 공사 실적이 모두 줄면서 전월 대비 4.3% 감소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5로 전월보다 0.8포인트 하락해 1999년 1월(96.5) 이후 21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현재 굉장히 위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용수 기자 hys@

## 카드업계 2위 삼국지

# 삼성 제친 KB... 현대도 턱밑 추격

올 1분기 점유율 2위는 국민카드  
삼성카드 점유 증가했지만 3위  
국민카드 마케팅 비용만 1.3조

수년째 혼전을 이어가고 있는 카드 업계 2위 쟁탈전에서 1분기에 KB국민카드가 삼성카드를 꺾고 올라섰다. '부동의 1위' 신한카드와의 격차는 여전히 있지만 2위를 차지하기 위한 혈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2분기 순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인·법인카드 신용판매 취급액 기준 올해 1분기 신용카드사 점유율 1위는 21.97%를 차지한 신한카드다. 이어 ▲KB국민카드 17.71% ▲삼성카드 17.67% ▲현대카드 16.28% ▲롯데카드 9.61% ▲우리카드 8.68% ▲하나카드 8.08% 순이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4분기보다 점유율을 0.28%포인트 늘리며 전업카



신한카드 사옥 전경

드사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삼성카드의 점유율 역시 0.14%포인트 증가했지만 0.04%포인트 차이로 순위를 내주고 말았다. 두 회사가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동안 현대카드 역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현대카드는 같은 기간 동안 0.04%포인트 늘리며 3위와의 격차를 1%대 중반으로 줄였다. 새롭게 2위에 올라선 KB국민카드와 아쉽게

자리를 내준 삼성카드. 뒤를 바짝 따라 붙은 현대카드까지 점유율을 높이는데 혈안이다.

점유율 2위 자리는 법인카드 실적에서 판가름 났다. KB국민카드는 전년 동기 대비 법인 실적에서 2600억원 가량 오른 반면 삼성카드는 동기간 오히려 3000억원 가량 하락했다.

KB국민카드의 마케팅비용은 업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KB국민카드는 마케팅비용에만 1조2836억원을 지출하며 전년도 대비 8.52% 늘었다. 업계에서 세번째로 많이 지출했다. 또 자동차 금융 등의 사업 다각화로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왔다.

4위 현대카드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특히 사업자표시신용카드(PLCC)를 통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지난해 코스트코에 이어 대한항공, 스타벅스 등 업계 주요 업체와의 협업을 진행하며 신규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지난 29일 부평종합금융센터 WM복합점포 개점식에서 KB증권 WM총괄본부 이흥구 전무(왼쪽 두번째), KB국민은행 경인지역영업그룹 정희철 대표(다섯번째)가 임직원과 함께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KB금융그룹

## 은행·증권 한곳에서... 부평 WM복합점포 개점

KB금융그룹, 총 81개 복합점포망

KB금융그룹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부평종합금융센터 WM 복합점포'를 열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로써 KB금융그룹의 WM 복합점포는 72개로 늘었으며 CIB 복합점포 9개를 포함해 총 81개의 복합점포망을 구축했다.

이번에 개점한 복합점포는 부평구 내에선 처음으로 개설한 WM복합점포다. 이번 개설을 통해 인근 국가산업단지 내 입점 기업, 부평구 거주 고객들에게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WM 복합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은행과 증권 업무를 같은 곳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의 모든 상품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어 고객별 니즈에 따른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또 은행과 증권 PB가 제공하는 부동산, 세무, 자산관리 등의 전문적인 상담을 '공동상담실'을 통해 한번에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

WM 부문을 총괄하는 김영길 부문장은 "은행, 증권 WM복합점포의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편리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 대부업 대출잔액·이용자수 소폭 하락

대부업, 저축은행업종전환 영향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예정

지난해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으로 영업을 전환하며 대부업체의 대출잔액과 이용자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올해 중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20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수는 8354개로 지난해 상반기(8294개)보다 증가했다.

반면 대부업 대출잔액은 1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8000억

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형 대부업은 14조원에서 13조1000억원으로 대출잔액이 감소했다. 중·소형 대부업은 2조7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산와머니 등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중단과 주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으로의 영업전환,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대출심사 강화 등에 기인해 대부업체 대출잔액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도 줄었다. 지난해 말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177만 7000명으로 지난해 6월(200만 7000명)과 비교해 23만명 감소했다. 대부업 이용자가 200만명 이하로 떨어진 건 2010년 6월말 이후 9년여 만이다.

대부업 대출금리는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며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해 말 기준 평균 대출금리는 18.4%로 지난해 6월말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는 21.5% 전년 6월 대비 0.4%포인트 증가했지만,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12.9%로 전년 6월 대비 0.9%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금리인하 혜택은 주로 법인차주에게 돌아갔다. 개인차주와 법인차주간 금리를 비교해보면 신용대출의 경우 개인차주는 법인차주보다 평균 19.6%포인트 금리가 높았다.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말 연체율은 9.3%로 지난해 6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신용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5@

## 신한카드 "카드로 월세 결제후 대금일에 납부"

My월세 프로세스, 국내 특허출원 중

신한카드가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마이(My)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My월세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바 있다.

임대인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기존에도 유사한 월세카드 납부 서비스들이 출시됐지만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혁신성을 바탕으로 한 My월세 프로세스를 국내 특허출원 중에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의 경우 임차인, 임대인 중 선

택해 부담할 수 있다. 수수료율은 1%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했다.

또 임차인이 당장 현금이나 계좌잔고가 부족해도 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이로써 카드 이용자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추진 정책 취지에 맞춰 하반기에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까지 월세카드납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의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석 기자

## 하나은행, 코로나 극복·상생 위한 노사 공동선언

사회적 약자 기부 공동기금 조성

하나은행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상생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하나은행 노사는 사회적 약자 기부를 위한 노사공동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직원들이 임금인상 소급분 중 1인당 5만원씩을 기부하면 은행도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을 기부한다.

하나은행 노사는 지역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



지성규 은행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최호걸 노조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노사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참석한 노사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도 동참한다.

이번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하나은행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원 중 일부를 은누리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는 코로나19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국내외 금융환경 속에서 무엇보다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경쟁력 경쟁력 강화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나유리 기자

## 금융당국, 전수조사·조치명령권 발동 검토

>> 1면 '또 터졌다 사모펀드'서 계속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항상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지만 보험은 계약조건이 굉장히 복잡하다.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까지 커버해주는 보험사는 없다고 보면 된다. 기업이 파산했을 때만 보장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에 판매사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원금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면 불완전판매 이슈가 제

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모펀드의 환매 연기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함께 조치명령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치명령권은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권한이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실태조사를 통해 의심스러운 지점을 발견했을 경우 자산동결이나 추가펀드 설정 제한 등에 조치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손범지 기자 sonumji301@

“지뢰밭도 끄떡없다”

## 현대로템, 장애물개척전차 수주

방사청 3000억 규모 수주 따내  
국내 첫 장비... 지뢰제거 탁월  
2023년까지 군에 납품키로

현대로템이 장애물개척전차 추가 양산사업과 구난전차 및 교량전차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수주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한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30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총 2366억원 규모의 장애물개척전차 양산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11월 수주한 1746억원 규모의 양산사업에 이은 두 번째 수주다. 이번에 수주한 장애물개척전차는 오는 2023년까지 군에 납품할 예정이며 전량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생산된다.

이번 사업의 수주는 방위사업청이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방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의 적극행정을 실현해 연말 발주 예정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앞당겨 추진한 산물이다.

장애물개척전차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장비로 전방에서 지뢰 및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동로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차체 전면의 지뢰제거장기를 이용해 땅을 갈아엎어 묻혀 있던 지뢰를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대인 및 대전차 지뢰를 제거하며 자기감응 지뢰 무능화장비로 자기장을 발사해 자기감응지뢰도 제거할 수 있다.

차체 상부에 부착된 굴삭팔에 굴삭용 키트나 파쇄기를 장착해 참호, 방벽



현대로템 장애물개척전차

등 다양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굴삭팔은 크레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 무거운 장비를 인양하고 운반하는 용도로도 활용 가능하다.

또 차량 후미 좌우에 안전지역 표시를 위한 표시막대 발사 기능을 갖춘 통로표식장비를 1개씩 장착해 군 병력의 안전한 기동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장애물개척전차는 지뢰 제거 능력을 바탕으로 비무장지대 등 대량의 지뢰가 매설된 지역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뢰 제거간 대전차 지뢰가 터져도 임무를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차체 방호력을 갖춰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지뢰 제거 작업이 가능하다.

장애물개척전차는 지난 2014년 현대로템이 체계개발 업체로 선정된 이후 4년여에 걸쳐 개발됐으며 기계화 부대

의 신속한 작전수행을 지원한다. 현대로템이 지난해 수주한 장애물개척전차는 현재 생산 중에 있으며 올 12월 전력화가 될 예정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우리 군의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물개척전차를 작기에 납품해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K2전차, 차륜형장갑차 등 기존 제품들과 더불어 방산부문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로템은 지난 26일엔 방위사업청과 632억원 규모의 구난전차 및 교량전차 창정비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기간은 내년 8월까지다. 창정비란 노후화된 전차를 분해해 전체적으로 수리하고 부품을 교체해 신차급의 성능을 확보하는 정비 단계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 SK하이닉스, 소부장 강화 4기 기술혁신기업 3곳 선정

2년간 제품 공동개발 등 지원

SK하이닉스가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지원을 이어간다.

SK하이닉스는 6월 30일 4기 기술혁신기업 3개사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주)세믹스, (주)엘케이엔지니어링, (주)에버텍엔터프라이즈 등이다. 외국기업 점유율이 높은 분야에서 국산화 경쟁력이 높은 곳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SK하이닉스와 제품을 공동개발하게 되며, SK하이닉스 생산라인에서 개발 제품을 직접 테스트할 기회도 제공한다.

SK하이닉스는 개발기간 단축과 제품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뿐 아니라, 일정 물량 구매를 보장받고 무이자 기술개발 자금대출 지원 및 경영 컨설팅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세믹스는 웨이퍼 신뢰성 테스트용 장비를, (주)엘케이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장비 내에서 웨이퍼를 고정하는 부품을 생산한다. (주)에버텍엔터프라이즈는 후공정 과정에서 칩과 기판의 연결에 사용되는 물질인 플러스를 생산하는



SK하이닉스는 3개 기술혁신기업을 선정해 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주)엘케이엔지니어링 이준호 대표, SK하이닉스 이석희 CEO, (주)에버텍엔터프라이즈 한태수 대표, (주)세믹스 김지석 대표. /SK하이닉스

소재 업체다.

협약식에는 이석희 CEO와 세믹스 김지석 대표, 엘케이엔지니어링 이준호 대표, 에버텍엔터프라이즈 한태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실을 분리해 화상으로 진행했다.

이석희 SK하이닉스 CEO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지만 기술 협업을 통해 양사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상생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김재용 기자 juk@

## 가락시장, ICT·AI 등으로 스마트하게

SK(주)C&C, 스마트마켓 사업 착수

가락시장이 디지털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만나 스마트 마켓으로 변모한다. SK(주)C&C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가락시장 스마트마켓 구축 종합계획 연구 용역 사업’에 착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수산물 산지 수확부터 배송, 하역, 거래, 품질 검사 및 도소매 판매 등 유통 전 과정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장’ 청사진을 수립한다.

스마트한 농수산물 유통으로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화상 거래 등 다양한 거래 방법에 대응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 구축을 통해 물류를 효율화하

고 유통 비용은 줄인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식품 이력제와 온·습도 센서 조절 장치 등 콜드체인을 도입한 농수산물 신선도 관리 시스템은 고품질의 신선한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전동 지게차와 AGV(무인 이송차)가 시장 내 물류 효율화를 지원해 하역, 이송, 배송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빅데이터 기반의 유통정보시스템은 농수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한다.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농수산물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형·비정형 유통 데이터를 활용한 농수산물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대량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도매유통에서 물량, 가격 등 유통정보를 제공해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준다. 이는 가격 안정화에 직결된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 현대오일뱅크의 장애·비장애 문턱 낮추기

## ‘배리어 프리’로 시청각 장애인도 영화감상

‘배리어 프리 영화’ 주제 토크쇼  
“장애·비장애 장벽 허물어야”

현대오일뱅크가 장애와 비장애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서울 남대문로 서울 사무소의 8평 남짓한 회의실에서 평소 영화를 좋아하던 이들과 함께 ‘영화살롱’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영화 ‘여고괴담’과 ‘간신’ 등으로 알려진 민규동 감독과 배우들이 현대오일뱅크 직원들과 만난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화면을 음성으로 읽어주고, 배우들의 대사를 자막으로 보여주는 ‘배리어프리 영화’가 주제로 선정됐다.

말 그대로 장벽 없는 영화라는 뜻을 지닌 배리어프리는 기존 영화에 음성과 화면해설을 입혀 시청각 장애인들도 즐길 수 있게 만든 영화다. 이 같은 토크쇼는 국내 최초의 시각 장애인 아나운서 이창훈과 배우 오하늬의 사회로 진행됐다. 패럴론은 한국영화감독조합 소속 민규동, 허인무 감독이 참여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2005년 박찬욱, 류승완, 봉준호 등 당시 소장파



현대오일뱅크가 6월 서울 남대문로 서울 사무소에서 영화 토크쇼를 진행했다. /현대오일뱅크

감독들이 주도해 만든 단체다.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과 힘을 모아 진행한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사업은 영화도 장애와 비장애의 문턱을 낮추자고 뜻을 모은 영화감독조합의 첫 번째 사회공헌 사업이다. 감독조합과 1%나눔재단은 올해 1월과 3월, 영화 ‘감쪽 같은 그녀’와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를 배리어프리 영화로 제작한 바 있다.

민규동 감독과 영화 ‘감쪽 같은 그녀’를 연출한 허인무 감독은 농어촌 지역 맹학교에서 시사회도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정이 취소됐다. 이에 1%나눔재단의 도

움을 받아, 토크쇼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1%나눔재단은 두 편의 배리어프리 영화와 토크쇼 영상을 전국 맹학교 등 관련 기관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영화감독조합의 협조를 얻어 내년 초까지 최소 2~3편의 배리어프리 영화를 추가 제작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 1%나눔재단은 2011년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1% 급여 나눔에서 시작됐으며, 올해 현대중공업그룹 전체 계열사 임직원이 동참해 출범한 사회공헌재단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QLED TV 10년 전 가격으로 만나세요”

삼성전자 ‘보상판매 특별전’

삼성전자가 14년 연속 글로벌 TV 판매 1위를 기념해 QLED TV 구매자에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QLED 보상판매 특별전’을 실시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구형 TV를 반납하면, QT80시리즈 이상 2020년형 QLED TV 구매 고객에 최대 100만원 상당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반납하는 TV는 브랜드나 연식 등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10



삼성전자는 QLED 보상판매 특별전을 진행한다.

년 전 풀HD TV 40형을 살 수 있던 금액으로 2020년형 QLED TV 65형을 제공한다는데 목적을 뒀다. 소비자들에 10년전 가격으로 더크고 압도적 화질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김재용 기자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하늘은 맑고 혜택은 많다

종이 통장 만들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작은 실천이  
최고 연 2.35%의 금리와 다양한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KB스타뱅킹에서 가입하세요  
KB맑은하늘적금



▶ 최고 연 **2.35%**

2020.05.12기준, 세전, 3년제, 우대금리 연 1.0%p 포함

▶ 환경 미션 달성 시  
최고 연 1.0%p  
우대금리 제공

종이 통장  
만들지 않기  
[연 0.1%p]

종이 서식  
사용하지 않기  
[연 0.2%p]

대중교통  
이용하기  
[최고 연 0.6%p]

환경상식  
퀴즈풀기  
[연 0.1%p]

▶ 대중교통 / 자전거  
상해관련 무료보험 제공  
[최대 2억원 보장]



[KB맑은하늘적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KB국민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를 KB국민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 및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0848호(2020.05.12), 광고물 유효기한 2020.12.31

**KB 국민은행**

# 신규 플랫폼·공간활용성 ↑... '더 뉴 싼타페' 신차급 탈바꿈



더 뉴 싼타페 디지털 언박싱  
'독수리 눈' 콘셉트 외장 디자인  
전자식 변속버튼 신규 적용  
디젤 2.2모델 기준 3122만원

현대자동차 대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싼타페가 2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를 통해 '더 뉴 싼타페'로 돌아왔다.

현대차는 6월 30일 현대차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 론칭 토크쇼 '더 뉴 싼타페 디지털 언박싱'을 열고 더 뉴 싼타페를 공개했다.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싼타페는 2018년 출시된 이후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며 2년 연속 국내 베스트셀링 SUV로 자리 잡았다. 출시 후 만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19만대를 돌파한 만큼 이번에는 출시되는 부분변경 모델의 합류로 3세대 싼타페의 기록을 갈아치울지도 관건이다.

더 뉴 싼타페는 2018년 출시한 4세대 싼타페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한층 고급스럽고 강인한 디자인, 신규 플랫폼 및 파워트레인, 첨단 안전·편의사양 등을 적용해 신차급으로 탈바꿈했다. 현



'더 뉴 싼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 외장 디자인

대차는 더 뉴 싼타페에 디자인 고급감을 강화한 최상위 캘리그래피 트림을 운영한다.

현대차는 기존 싼타페의 세련된 디자인에 현대차 디자인 정체성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적용해 한층 고급스럽고 강인한 더 뉴 싼타페의 디자인을 완성했다.

외장 디자인은 날카로운 '독수리의 눈'을 콘셉트로 헤드램프 일체형 넓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수직의 T자형 주간주행등(DRL)을 독창적으로 대비시킨 강렬한 전면부가 특징이다. 측면부는 전면부터 후면부까지 이어지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 세련미를 더하고, 후면부는 얇고 길어진 LED 리어 램프, 하단 반사판, 차량 하부를 보호하는 후면 스키드 플레이트의 삼중 가로줄이 안정감을 준다.

동급 최고 수준의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계기판)와 10.25인치 내비게이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새로 적용된 전자식 변속버튼(SBW)이 사용자의 직관적인 조작을 도와 최적화된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더 뉴 싼타페에 차세대 플랫폼을 신규 적용하고 최적화된 설계로 공간활용성을 강화했다. 기존 싼타페 대비 전장이 15mm

부는 34mm(4770mm → 4785mm), 2열 레그룸이 34mm(1026mm → 1060mm) 늘어나 실거주성이 개선됐으며 2열 후방 화물 용량은 기존 싼타페 대비 9L(625L → 634L) 증가해 골프백 4개가 들어가는 등 넉넉한 적재성을 갖췄다. 최고출력 202마력(PS), 최대토크 45.0kgf·m의 힘을 발휘하며 기존 싼타페 대비 4.4% 개선된 14.2km/L의 연료소비효율(연비)을 달성했다.



'더 뉴 싼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 내부 디자인

또 새로운 첨단 안전 및 편의사양도 대거 적용했다. 현대차는 더 뉴 싼타페에 차선을 인식해 주행 시 차로 중앙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차로 유지 보조(LFA), 주차 및 출차를 위한 저속 후진 중 충돌 위험 감지 시 경고 및 브레이크를

자동 제어하는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PCA), 차량 탑승 없이 스마트 키 버튼으로 차량을 움직여 주차 및 출차를 도와주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등 새로운 안전사양들을 추가했다.

더 뉴 싼타페는 1일부터 판매되며 가격은 디젤 2.2 모델 기준 3122~3986만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뉴 싼타페는 한층 높아진 안전성과 편의성으로 가족을 위한 차를 고려하는 고객층을 만족시킬 차량"이라며 "앞으로 더 뉴 싼타페가 중형 SUV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청주공장에서 LG전자 관계자들이 U+지능형영상보안솔루션으로 CCTV 관제 화면을 확인하고 있다. /LG유플러스

## LGU+, ICT 기술로 24시간 공장 자동감시

LG전자 청주공장에 영상보안 솔루션

LG유플러스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LG전자 청주공장에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한 'U+지능형영상보안솔루션'을 구축하고, 오는 8월부터 1개소에서 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U+지능형영상보안솔루션은 공장에서 안전을 위해 진행하던 CCTV 육안 관제, 직접 순찰 등의 업무를 5G·AI 등 ICT 기술을 통해 24시간 자동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디지털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설비 이상 알림 ▲이상 온도 감지 ▲안전모 미착용 감지 ▲위험구역 접근 감지 ▲얼굴 인식 출입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배관 손상 등 설비 이상으로 수증기, 연기, 불꽃이 발생하면 관제 센터에 알려주고, 야외 소각탱크 등 고온 설비의 온도 변화도 열상 카메라로 감시해 이상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배관 손상 시 발생하는 수증기는 영상분석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LG유플러스는 음원분석 기술을 도입해 이를 보완했다. 수증기 누출로 인한 의심 소음이 발생하면, 알람과 함께 주변에 배치된 카메라를 해당 배관 쪽으로 회전시켜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도 즉시 감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상 분석으로 공장 내 모든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사전에 설정한 위험 구역으로 접근하거나 특정 설비를 조작하는 경우도 통제할 수 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작업자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5G 기반 이동형 고화질 카메라를 곳곳에 배치할 계획이다.

야외나 실내 임시작업장 같이 유선 CCTV의 설치가 어려운 곳에도 이동형 카메라를 배치해, 영상분석 기반으로 현장의 안전을 강화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 두산그룹, '2020수소모빌리티+쇼' 참가

친환경·고효율 제품 기술역 한자리에 전시회 테마 맞춰 수소드론 등 공개

두산이 수소드론, 연료전지 등 그룹 내 친환경·고효율 제품 기술역 한자리에 선보인다.

두산그룹은 1일부터 3일까지 일산 컨텍스에서 열리는 '2020 수소모빌리티+쇼'에 참가한다. 두산그룹에서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는 회사는 두산모빌리티 인노베이션(DMI), ㈜두산 퓨얼셀과 파워BU, 두산퓨얼셀 등 3개 회사다.

두산은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등 이번 전시회 핵심 테마에 맞춰 수소드론과 가정·건물·발전용 연료전지 등 친환경·고효율 수소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DMI는 두 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드론용 수소연료전지팩과 이를 탑재한 수소드론(DS30)을 전시하고, 까다로운 테스트를 거친 수소용기의 안전성, 수소 공급 네트워크 등을 소개한다. 드론



1일부터 3일까지 일산 컨텍스에서 열리는 '2020 수소모빌리티+쇼'에 참가하는 두산의 부스 이미지

용 수소연료전지팩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기존 배터리 드론의 비행 시간 한계를 뛰어 넘은 제품이다.

㈜두산 퓨얼셀과 파워BU는 10kW 건물용, 1kW 주택용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를 전시한다.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는 고분자막 전해질로 이용하는 연료전지 방식이다. 또 두산퓨얼셀은 440kW 규모의 발전용 인

산형 연료전지(PAFC)를 제품 모형과 다채로운 영상, 그래픽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소개한다. 인산형 연료전지는 액체 인산을 전해질로 이용한다.

이와 함께 전기, 열, 수소를 동시에 생산하는 '트라이젠 시스템'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스마트팜, 냉동창고 등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도 선보일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 LGU+, 1인 가구 맞춤 IoT 패키지 출시

U+스마트홈 구글 패키지 구글 어시스턴트 통해 다양한 작업지원

LG유플러스는 1인 가구를 겨냥한 홈IoT 패키지 'U+스마트홈 구글 패키지'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U+스마트홈 구글패키지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장착된 스마트 디스플레이 '구글네스트 허브'와 무드등, 가전제품

의 전원을 제어하고 화재 위험 방지가 가능한 '멀티탭'을 하나로 묶었다. 구글네스트 허브에 장착된 구글어시스턴트는 음성명령을 인식해 일상 업무처리, '나의 하루' 설정하기, 엔터테인먼트 기기 등을 도와주는 구글서비스다.

U+스마트홈 구글패키지는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기

획상품이다. 이상품을 통해 고객들은 집 안팎에서 하루 종일 나만의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콘텐츠 소비를 하며 음성만으로 다양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U+스마트홈 구글패키지는 월 7700원으로, 구글 서비스와 LG유플러스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구글패키지의 출시 기념 프로모션으로 가입 고객 전원에게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3개월 ▲구글 원 멤버십 3개월 무료 체험을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





# LS일렉트릭, '쿤란' 지분 19% 인수... 中 진출 시동

(중국 3위 PCS 기업)

창저우 쿤란 지분 약 18억에 확보  
PCS 핵심부품인 펌, 쿤란에 수출  
쿤란에 생산라인 등 투자 추가 단행

LS일렉트릭이 중국의 ESS(에너지 저장장치)용 PCS(전력변환장치) 제조 업체 지분을 확보했다.

LS일렉트릭은 6월 30일 중국 내 3위 PCS 기업 '쿤란'으로부터 PCS 생산 자회사 '창저우 쿤란' 지분 19%를 1052만 위안(약 1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LS일렉트릭이 중국 현지 ESS 시장 진출을 위해 배터리기업 '나라다'와 지난해 체결한 포괄적 사업 협력의 일환이다. LS일렉트릭은 쿤란이 보유한 창저우 쿤란 지분을 인수해 현지에서 PCS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LS일렉트릭

/뉴시스

LS일렉트릭은 "지난해 말부터 순조롭게 진행되던 지분 인수 계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부딪혔지만, 화상회의를 상시 운

영하며 의견을 조율해 계약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은 용산 LS타

워에서, 나라다 주 바오 이 총재와 쿤란 위 종란 동사장은 LS일렉트릭 상해 법인에서 태블릿 PC에 실시간 서명하는 디지털 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LS일렉트릭은 PCS 핵심 부품인 PEBB(펌)을 창저우 쿤란으로 수출하고, 창저우 쿤란은 한국산 PEBB으로 제조한 PCS에 나라다 배터리를 탑재한 ESS 완제품을 중국 전역에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은 지난 2018년 PEBB를 국내 최대 수준인 16대 병렬 연결하며 확장성과 안정성, 경제성을 개선한 '모듈러 스케일러블 PCS'를 출시한 바 있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중국에서도 동일한 품질의 PCS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창저우 쿤란에 6억5000만원 규모의 생산라인과 시험설비 투자를 추가로 단행하고, 국내 기술인력도 현지

에 대거 지원해 한국 시장서 유통되는 PCS에 준하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한편 세계 ESS 시장 규모는 2018년 6.6GW에서 2023년 90GW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시장의 경우 2018년 누계 1.1GW 중 같은 해 신규 설치가 집중(0.7GW) 됐을 정도로 더딘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최근 '뉴 인프라'라는 전략적 정책 발표를 통해 신 에너지와 ESS 보급 확대를 강력 추진하면서 성장세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급성장하는 현지 수요에 발 맞춰 고품질 PCS를 안정적으로 현지에서 생산, 나라다의 배터리와 결합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수도권에 '스마트 오피스'... 출퇴근 시간 단축

롯데쇼핑HQ, 오늘부터 오피스 도입  
롯데백화점 노원점·일산점 등 5곳

롯데쇼핑HQ(본점)가 주 1회 재택근무 시행에 이어 7월 1일 거점 오피스를 도입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롯데쇼핑HQ는 기획전략본부, 지원본부, 재무총괄본부 등 롯데쇼핑 각 사업부에 포진돼 있던 스태프 인력을 한 데 모은 조직이다. 2020년 1월 신설됐으며 각 사업부는 영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고려됐다.

롯데쇼핑HQ가 마련한 '스마트 오피스'는 수도권 일대 5곳이다. 롯데백화점 노원점·일산점·인천터미널점·평촌점과 빅마켓 영등포점(인재개발원)까지 총 5개 거점에 225석을 준비했다. 사용 대상은 롯데쇼핑HQ와 롯데백화점·마트·슈퍼·롭스·e커머스 각 사업부 본사 직원 3000여 명이다. 지점별로 일부 좌석에는 노트북을 비치해 이용 직원의



롯데쇼핑 스마트오피스.

/롯데쇼핑

편의를 도모했다.

스마트 오피스는 자택 인근의 근무공간으로 출근해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장근무 중 본사까지 돌아갈 필요 없이 인근 오피스에 들러 남은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현장 소통을 강조하는 롯데쇼핑의 근무 방침과도 일맥상통한다. 여러 사업부 직원들이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함께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웹 기반에 좌석 예약시스템이 구비되어 언제 어디서나 5개 거점 오피스의

좌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편리하다.

롯데쇼핑의 스마트 오피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롯데그룹 차원에서 도입한 '스마트 워크' 시스템의 일환이다. 이미 지난 26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롯데쇼핑HQ는 백화점·마트·슈퍼·롭스·e커머스 각 사업부 간 업무 시너지를 도모하고 본사와 현장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스마트 오피스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 삼양, 업무환경 혁신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전 그룹 확대 검토

삼양홀딩스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오피스 365'를 시범 도입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오피스365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한 업무용 클라우드 서비스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태블릿, 스마트폰, 개인용 PC 등 기기 종류와 관계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문서를 읽고 편집할 수 있다.

삼양그룹은 이번 업무 환경 변화를 통해 제공되는 문서 공동 편집, 화상회의 등 협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전 그룹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범 도입 조직은 삼양사 코스메틱PU, 삼양바이오팜USA 등이다. 삼양사



삼양홀딩스는 시공간 제약 없는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협업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 365'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삼양그룹

코스메틱PU와 삼양바이오팜USA 모두 사업 특성상 협업과 수평적 분위기가 필수적이다.

코스메틱PU는 삼양사의 소재 과학 전문 코스메틱 브랜드 '아바웃미(ABOUT ME)'를 통해 많은 제품을 선보이며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 개발과 차별적 마케팅을 위해 조직 내외부의 소통이 활발하다.

/원은미 기자

## 대구 전매제한 前 분양 막차... 이달 1만여가구 쏟아진다

2000년 조사 이래 대구 최다 물량  
오는 8월 분양단지부터 규제 강화

7월 대구광역시에서만 아파트 1만여 가구가 쏟아진다. 수성구를 제외한 전매제한 기간 6개월이 적용되는 분양 막차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대구광역시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총 16개 단지 1만575가구다. 2000년 조사 이래 대구에서 월별 기준 역대 최다 물량이다.

올해 월별 중 가장 많은 물량이며 지난달(2633가구)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역대 두번째로 공급이 많았던 2007년 5월 6880가구보다도 4000가구

가량 많다.

지역별로는 ▲서구 1개 단지 1678가구 ▲중구 2개 단지 1040가구 ▲동구 6개 단지 4736가구 ▲남구 1개 단지 345가구 ▲달서구 1개 단지 92가구 ▲수성구 5개 단지 2684가구 등이다.

지난 5월 11일 정부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당첨자 발표 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강화된 규제는 오는 8월 분양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8월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예고되면서 건설사별 밀어내기 물량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며 "사실상 전매제한 기

한이 6개월이 적용되는 마지막 단지(수성구 제외)로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상반기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은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30.15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광풍이 불었다. 이는 전국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인 29.4대 1을 뛰어넘은 수치다.

규제 전 막차 주요 분양단지로 반도건설은 대구 서구 평리3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인 '서대구역 반도유보라센텀 59~138㎡, 1678가구 중 1226가구를 일 반분양 한다. 단지 인근에 서대구KTX 역(예정)이 위치해 있고, 국채보상로와 신천대로, 서대구로, 서대구IC도 가까워 시내의 이동이 편리하다.

/이규성 기자 peace@

## 5월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연 2.81%

1996년 편제 이후 최저치

지난달 시장금리가 하락하며 저축성 수신금리가 1996년 편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출금리는 보증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모두 하락했지만 기업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소폭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30일 발표한 '2020년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5월중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기준 예금 금리는 전월에 비해 0.13%포인트 하락한 연 1.07%를 기록했다.

가계 대출금리도 전달보다 0.8%포인트 하락한 2.81%로 집계됐다. 보증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각각 0.1%포인트, 0.06%포인트씩 하락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연 0.5%로 인하하면서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시장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계대출 금리가 연동되는 은행채 5

년물은 1.38%로 전달보다 0.14%포인트 하락했고, 코픽스 금리도 0.06%를 기록해 0.14%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가계대출금리 하락세에도 기업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권 대출평균 금리는 연 2.82%로 올랐다.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는 2.83%로 전달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2.75%로 고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0.10%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저금리 대출 비중이 지난달(17.6%)에서 15.4%로 축소되면서 0.02%포인트 오른 2.88%를 나타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달에 가계대출 금리가 소폭 상승한 반면, 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에 대한 조정이 일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흐름을 두고 봤을 때 기업대출 금리 하락 폭이 가계대출 금리보다 상당히 더 크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

주름개선기능성화장품 www.pdna.co.kr

# 연어의 힘으로 빛나다

## P+DNA 세럼 & 크림

3배 강화된 연어DNA로  
광채피부를 경험하세요

\* 기존 자사제품 대비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 기대해보세요, 14일 후의 피부 동안피부를 위한 DNA 3000ppm 함유

- 기존 자사제품 대비 sodium DNA 함유량이 3배 더 강화되었습니다.
- 단백질 펩타이드, 프랑스 보르필린 등 차세대 프리미엄 원료를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 세라마이드 복합체, 발효추출물이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 힘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 「50%」특별할인

P+DNA 런칭 2주년 기념  
고객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리지널 제품을  
파격가에 드립니다

[\*sodium DNA 1000ppm]



#### 어린 피부를 위한 DNA 과학

- 청정 연어 DNA**  
물광피부  
항노화 효과
- 탄력보습**  
펩타이드 1-7-8  
단백질 복합체
- 주름개선**  
아데노신  
주름개선기능성
- 스킨퍼밍**  
프랑스 세더마사  
보르필린
- 피부장벽 강화**  
세라마이드 복합체  
건강한 피부지질회복

#### 5가지 항산화 항노화 추출물

- 발효콩**  
항산화 영양소  
이소플라본 함유
- 발효 겨우살이**  
매고롭고 빛나는  
피부결
- 발효 띠뿌리**  
식물성 에스트로겐  
진정효과
- 병풀 추출물**  
피부 진정  
피부영양강화
- 눈연꽃 추출물**  
피부 보호 및 영양  
피부 탄력

# P+DNA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인텐시브 DNA 세럼&크림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 070-4870-0708







**alton**  
DO THE BEST, BE THE STYLE

www.altonsports.com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기자전거

**alton**



## E-ALTON ECONOVA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 가능 PAS 전용모델

- 삼성 SDI 리튬 이온 배터리 3-4 시간 완충
- 완충 시 60km 주행 가능
- 전국 A/S망 구축







### 롯데홈쇼핑, 새 브랜드 슬로건 '크리에이트 더 뉴'

# TV홈쇼핑 넘어 미디어커머스기업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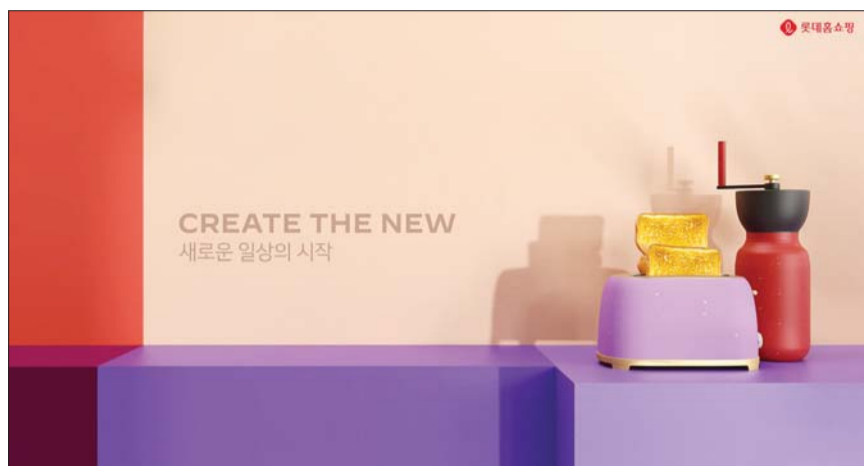
#### 고객과의 적극 소통 등 미션으로 론칭기념 응원댓글 이벤트 진행

롯데홈쇼핑은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크리에이트 더 뉴'(CREATE THE NEW)를 발표하고, 미디어 커머스 기업으로의 변화를 가속화한다.

롯데홈쇼핑이 30일 밝힌 'CREATE THE NEW'는 미디어와 쇼핑의 경계가 허물어진 무한경쟁 상황에서 차별화된 쇼핑 경험 제공으로 고객에게 끊임없이 새로움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TV홈쇼핑을 넘어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콘텐츠 제공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따라 ▲알아서 먼저 제안하는 큐레이션 서비스 ▲재미와 편안함이 있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패션, 뷰티 전문성 및 단독 서비스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미션으로 내세웠다.

또한 롯데의 'L'을 기본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



롯데홈쇼핑 새 브랜드 슬로건 CREATE THE NEW

티를 선보이고, 방송, 모바일, 주문, 배송 등 고객 접점에 적용할 예정이다. 'L'은 경계 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미디어를 만나는 롯데홈쇼핑을 상징하며 세로 색상은 레드, 가로는 퍼플을 적용했다. 방송화면, 앱 아이콘, 배송박스 및 차량 등에 적용해 브랜드 일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모바일 앱의 경우 TV, 티커머스, 모바일 생방송 등을 전면에서 내세워 영상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외에도 브랜드 슬로건을 고객들

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징글을 활용한 통화연결음을 제작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신규 브랜드 슬로건 제작은 미디어 커머스 기업으로 도약 중인 롯데홈쇼핑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내외부 고객 접점에서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킴으로써 기존 TV홈쇼핑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

획이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신규 브랜드 슬로건과 BI 론칭을 기념해 7월 10일(금)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롯데홈쇼핑 리뉴얼 응원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홈쇼핑의 새로운 BI를 확인하고 응원 댓글을 작성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각각 3만원의 적립금을 제공한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도 인증샷 댓글, 해시태그 챌린지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에어팟, 손마사지기 등을 증정한다.

김종영 롯데홈쇼핑 마케팅부장은 "미디어와 쇼핑의 경계가 없는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움을 전달한다는 의미의 신규 슬로건과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제작해 발표하게 됐다"며 "TV홈쇼핑을 넘어 미디어 커머스 기업으로 빠르게 변신 중인 롯데홈쇼핑의 모습을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오리온 본사 전경. /오리온

### 오리온, 식품관리 강화 신선도·안전성 확보 총력

오리온이 여름철 기온변화에 대응해 전국 영업소와 서울·경기지역 유통처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오리온은 전국 영업소를 대상으로 제품 보관 온도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지, 해충 방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고온에 취약한 젤리, 초콜릿, 파이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전국 물류 창고의 냉방시설을 수시로 확인해 제품의 변형을 예방하는 한편, 각 영업소 창고의 온·습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제품의 신선도와 안전성 확보에 전력을 기울인다.

오리온은 지난 2014년 전국 영업소 창고의 직사광선 차단 시설을 보완하고, 섭씨 25도 이하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강제 환기 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다. 글로벌 품질안전 관리 차원에서 중국법인 물류창고에 설치된 냉방시설 점검도 강화한다. 땅이 넓은 중국 지역 특성에 맞춰 냉장차를 이용해 제품을 배송하는 등 현지 소비자들에게 더 신선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유통단계부터 관리하고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 롯데마트, 스타트업 5곳 지원

#### 롯데엑셀러레이터 등과 협업 피칭데이 상금 최대 1500만원

롯데마트가 롯데엑셀러레이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해 7월 15일까지 '롯데마트 리테일 테크&서비스 스타트업 챌린지'를 진행, 다양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5개사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롯데마트 리테일 테크&서비스 스타트업 챌린지'에서는 위치기반 기술,

빅데이터, VR/AR 등의 기술을 가진 '리테일 테크' 부문과, '공유경제' '미디어커머스' '구독경제' 등의 기술을 가진 '리테일 서비스' 부문 2가지로 나누어 모집한다.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롯데마트는 모집 기간에 지원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7월 16일(목)부터 22일(수)까지 서류 평가를 진행하며, 이후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5개사를 대상으로 POC(Proof of concept) 기회를 제공한다.

챌린지를 통해 선발된 스타트업은 POC가 진행되는 8월부터 10월까지 롯데마트 현업팀과의 협업 및 롯데엑셀러레이터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며, 11월 개최예정인 피칭데이를 통해 최대 1500만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수기업에 한해서는 롯데 엑셀러레이터 투자 연계 및 롯데마트 채널 사업 제휴가 검토될 예정이다.

/조효정 기자



한국피앤지 발라카 니야지 대표. /한국피앤지

### "생활 통한 지구혁신에 최선 다할 것"

#### 한국피앤지 '지속가능형 캠페인'

"생활을 통해 지구를 혁신하는 힘을 만들겠다."

생활용품기업 한국피앤지(P&G)가 소비자와 함께 하는 환경 지속가능성 캠페인을 공개했다. 소비자, 유통사, 시민단체, 정부 등과 힘을 모아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발라카 니야지 대표는 30일 온라인으로 중계된 '지속가능형 캠페인' 간담회에서 "피앤지는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매 순간 마주하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이라며 "소비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생활을 통해 지구를 혁신하는 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품혁신, 순환경제, 책임소비, 지속가능한 사회 문화 조성 총 4가지 분야에 집중한다.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 고품질의 지속가능한 제품 혁신·개발, 순환경제를 지원하는 제조·유통 시스템 구축, 책임있는 소비 독려, 지속가능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 등이다.

이날 니야지대표는 피앤지가 184년

간이론 역사를 소개했다. 고품질의 제품을 통해 2000만 대한민국 가정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며 사업 비전과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다우니 폼형 세제나 초고농축 섬유유연제 등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유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온라인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각오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인재 육성과 포용성 높은 조직문화 관리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지는 190여 개국에서 65개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품질의 지속가능한 제품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출시한 다우니 폼형 세제가 대표적이다. 퍼프 형태의 세탁세제를 개발해 포장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70% 줄였다.

�탈-비는 칫솔모 교체만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클릭'을 내놓았다. 일반 칫솔 대신 클릭을 사용하면 3개월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다. /조효정 기자



리테일테크 챌린지 포스터 /롯데쇼핑

## 빍스, 폭립 업그레이드 '골든립' 출시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빍스가 시그니처 메뉴 '폭립'의 맛과 풍미를 업그레이드한 '빍스 골든립'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빍스 골든립은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튀겨 낸 폭립을 치즈 콘크림, 레드 커리, 마라 핫 등 개성 넘치는 소스와 채소, 레몬, 크루통 등 다양한 토핑을 곁들여 즉석에서 지글지글 끓여 즐기는

신개념 폭립이다. 바삭하면서 촉촉한 폭립과 감칠맛 나는 소스가 조화를 이룬다. 폭립에 소스를 넣어 끓인 후 가장 맛있는 온도로 바로 즐길 수 있다. 일부 매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던 '시즐링 감바스'도 확대 출시했다. '시즐링 감바스'는 오동통한 새우와 쫄깃한 홍합에 고소한 오일 소스를 넣어 다양한 토핑과 함께 끓이는 요리다. /조효정 기자



정원e샵 건강한 여름나기 경품기획전 /대상

### 대상, 온라인쇼핑몰서 '여름나기 경품기획전'

대상이 통합온라인쇼핑몰 정원e샵에서 7월 13일까지 '이고진 품roller 마블'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건강한 여름나기 경품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정원e샵에서 진행되는 경품 이벤트로, 정원e샵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벤트 페이지 내 원하는 경품에 '응모하기 버튼'을 눌러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한 회원 대상으로 추첨이 진행된다.

당첨자 추첨은 최근 3주간(6월22일~7월13일) 정원e샵 청정원&종가집 제품 누적 구매액이 3만 5000원 이상인 고객들에 한해 이뤄진다.

혼자 시원하게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이고진 품roller 마블 90cm(10명), ▲이고진 더센 라텍스밴드 3종(10명), 저온속성해 더욱 쫄깃한 ▲청정원 라이틀리(Lightly) '쿨드레이징 닭가슴살'(10명), 칼로리 부담을 줄여 가볍게 즐기는 ▲청정원 라이틀리 '마시는 곤약쥬스' 3종(10명),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 /조효정 기자

# 휴젤, 보톡스 1위 굳히기... 유럽 진출 신호탄

지난 1월 폴란드·독일 임상3상 완료  
오스트리아 소재 제약사와 파트너십  
미국 현지 자회사에 신임 대표 영입



휴젤이 글로벌 보툴리눔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고 있다.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보툴리눔 독신 제제 '보툴렉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미국 유럽으로 발을 넓혀가고 있다.

휴젤은 30일 약 1조원 규모 유럽 보툴리눔 독신 시장 진출을 위해 유럽 판매처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휴젤은 지난해 1월 유럽 유통 파트너사인 '크로마'와 함께 폴란드, 독일 임상 3상을 완료한 바 있다. 이후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진행, 29일(현지시간) 유럽의약품청(EMA)에 허가신청서 제출을 마쳤다. 신청서 제출

후 허가까지 약 1년 여가 소요되는 만큼, 내년 중순께 유럽 판매 허가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보툴리눔 독신 시장은 약 1조 원 규모로, 미국과 함께 전세계 보툴리눔 독신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시장이다. 휴젤은 판매 허가 획득 후 유럽 시장 내 성공적인 안착을 목표로 오스트리아 소재 제약사 크로

마와 파트너십을 체결, 크로마가 유럽 시장 내 '레티보(유럽 수출명)'의 유통을 담당한다.

크로마는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으로, 40년 이상 쌓아온 마케팅 노하우와 성공 경험을 갖췄다. 휴젤은 크로마의 대표 제품 '세이파 필러'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빠른 시장 점유율 확대, 오는 2025년까지 유럽 시장 점유율 10~1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휴젤은 최근 미국 현지 자회사에 제임스 하트만 신임 대표를 영입하고 미국 진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 2018년 설립한 '휴젤 아메리카'는 휴젤이 지분 70%를 보유한 자회사로,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 시장 내 휴젤 제품에 대한 유통 및 마케팅 활동을 직접 운영한다. 휴젤은 올해 연말경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품목허가(BL

A)를 신청해 내년 말께 정식 허가를 취득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진출도 임박했다. 휴젤은 지난 4월 9일 이미 중국 허가 심사를 마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회사측은 이르면 7월 중국 허가를 받고, 하반기 중국 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젤 관계자는 "유럽은 중국,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 보툴리눔 독신 시장을 이끄는 주요 시장 중 하나로 이번 판매 허가 신청서 제출은 휴젤의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확대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올해 중순께 허가를 앞두고 있는 중국 시장과, 올해 연말 판매허가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까지 성공적인 글로벌 빅3 시장 진출을 통해 휴젤의 글로벌 기업 도약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빙그레 '꽃게랑'의 고급스런 변신

빙그레가 꽃게랑 브랜드를 의류 및 패션 아이템으로 재해석한 재미있는 캠페인을 선보인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꽃게랑 스넥의 모양을 로고화하여 패션 브랜드 'Cotes Guerang(코뜨-게랑)'을 런칭하는 컨셉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서 빙그레는 꽃게랑 브랜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빙그레는 패션 아이콘 지코를 모델로 기용하고, 꽃게랑 로고를 사용한 티셔츠 2종, 반팔 셔츠, 선글라스, 미니백 2종, 로브, 마스크를 한정판으로 출시한다.

/조효정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 'CWP291'

### 폐섬유화증도 효능 확인



폐섬유화증 치료용 조성물 특허출원  
CWP291, 다양한 암종 대상 개발 진행

JW중외제약이 개발 중인 Wnt 표적 항암제 'CWP291'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뿐만 아니라 중증 폐질환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W중외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CWP291을 '폐섬유화증 치료용 조성물'로 특허 출원했다고 30일 밝혔다.

폐섬유화증은 폐 조직이 굳어서 심각한 호흡장애를 불러일으키는 호흡기 질환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폐조직

이 손상되거나 발생하며 한 간질성 폐염증으로부터 진행된다.

CWP291은 암세포의 성장과 암 줄기세포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물질인 Wnt/β-catenin 기전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로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있는 혁신신약(First-in-Class) 후보물질이다.

JW중외제약은 CWP291을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뿐만 아니라 약물동태(체내 약물농도 변화)와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치료용도로 지난 11일 특허를 출원하고 본격 개발에 착수한 상태.

최근 종료된 동물 모델 효능평가에서 기존 사용 약물 대비 동등 이상의 항섬유화 효능이 확인돼 코로나19 관련 폐질환 치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식물관 PH에서 열린 론칭 행사에서 천중식 천랩 대표가 최초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원은미 기자

## "150개국 개인별 맞춤형 헬스케어 시작"

천랩 '헬스케어 3단계 프로그램'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 분석 바탕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천랩이 생애 전 주기 마이크로옴 건강관리 서비스 시대를 열었다.

천랩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공식 론칭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을 의미하는 microbe와 '생태계'를 의미하는 biome의 합성어로 '미생물 생태계'를 의미한다.

천랩은 30일 서울 강남구 '식물관 PH'에서 론칭 행사를 열고,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 3단계 프로그램'의 서비스 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천랩 최초의 B2C 서비스인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는 '헬스케어 3단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헬스케어 3단계 프로그램은 ▲1단계 '겟 인사이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또는 '장 유형 확인 설문' ▲2단계 맞춤형 프로&프리바이오틱스, '천랩바이오틱스' 제공 ▲3단계 '피비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관리로 이루어진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다.

천랩은 독자적으로 전세계 150여 개국 3만 7000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플랫폼을 구축,

이지바이오클라우드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자용 솔루션으로 제공해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를 균형 있게 바꾸어 개인의 건강 관리를 돕는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다. 천랩은 국내 주요 의료기관과의 임상연구 및 두 차례에 걸친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자체 연구를 통해 질환별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건강 지수인 'GMI'를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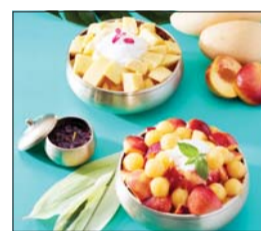
GMI는 ▲미생물 다양성 ▲염증 유발 미생물의 비율 ▲염증 억제 물질을 생성하는 미생물의 비율 ▲수렴체집인과의 유사도 등을 반영한 지수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천랩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자신의 GMI 수치와 장 유형을 찾는다. 2단계는 장 유형별 맞춤 프로&프리바이오틱스인 '천랩바이오틱스'를 제공한다. 마지막 3단계는 '피비오(pibio)' 애플리케이션으로 배변상태 변화를 포함, 기분, 복부팽만감 등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 여름 제철 과일 품은 빙수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이 본격 여름 시즌을 맞아 본관 1층 로비라운지 크리스탈 가든



에서 망고와 복숭아로 만든 빙수 2종(사진)을 선보인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크리스탈 가든의 빙수 2종은 여름 제철 과일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곱게 간 우유 얼음에 세프가 만든 홈메이드 단팥을 얹어 클래식한 우유 빙수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다. 빙수의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 주는 고급스러운 방자유기에 담아내 시원함도 오래 느낄 수 있다.

'망고 빙수'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크리스탈 가든의 여름 시그니처 메뉴로, 7년째 그 인기와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FDA 희귀의약품 지정

한미약품, 소아질병 의약품 추가 지정



한미약품은 단장증후군 치료 바이오신약으로 독자 개발 중인 랩스GLP-2 아날로그(LAPSGLP-2 Analog)가 미국 식품의약품(FDA)로부터 희귀소아 질병 의약품(RPD)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4일 먼저 RPD로 지정된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 바이오신약(LAPSGlucagon Analog)에 이어 두번째다. 한미약품은 RPD 연속 지정에 따라 30여개에 이르는 자사 혁신신약 파이프라인들이 희귀질환 분야에서 혁신성을 확고히 입증받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LAPSGLP-2 Analog의 개선된 체내 지속성 및 우수한 용도

세포 성장 촉진 효과를 바탕으로 월 1회 투여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단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단장증후군 적응증으로 국내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미국 및 유럽 임상 2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LAPSGLP-2 Analog는 2019년 FDA와 유럽 EMA로부터 단장증후군 치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 TBJ-농심

### 너구리 한마리 입고하세요

한세엠케이의 베이직 트렌디 캐주얼 브랜드 TBJ는 식품전문기업 농심의 '너구리'와 손잡고 이색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출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TBJ X 너구리 콜라보 컬렉션'은 총 4종으로 구성됐다. 귀엽고 앙증맞은 너구리 캐릭터 모양의 후드티셔츠, 너구리 라면을 감쪽한 자수로 담아낸 볼캡,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포켓티셔츠와 그래픽티셔츠까지 다채로운 구성으로 힙하고 개성 있는 스타일을 뽐낼 수 있다. /조효정 기자



FFTK 2020 인터뷰

이종훈 롯데액셀러레이터 투자본부장

# “코로나19에 푸드테크시장 발전 가속 대기업 차원 투자, 미래 열어나갈 것”



“먹거리시장은 전 세계 70억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에서만 200조인 거대 산업 시장으로 매우 중요한 투자 대상입니다. 푸드테크는 먹거리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고 투자의 먹거리이기도 합니다.”

이종훈 롯데액셀러레이터 투자본부장은 “롯데액셀러레이터는 중앙연구소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협업해서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협업 중”이라면서 “대기업 차원에서 좋은 푸드테크 시장에 투자하고, 푸드테크

시장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종훈 롯데액셀러레이터 투자본부장은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싹을 틔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약 130여 개의 기업과 함께 L-Camp(롯데 액셀러레이터의 6개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명칭)를 운영했으며 9개의 푸드테크 스타트업 투자를 담당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푸드테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메트로신문이 이종훈 롯데액셀러레이터 투자본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 아직은 푸드테크가 딜리버리 및 로보트에 한정돼 보인다. 푸드사이언스를 비롯한 타 푸드테크는 투자하기에 시장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당장 3년 5년만 봤을 때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오늘 오전에도 배양육에 관한 투자 건을 검토하고 왔다. 해당 사업은 3~4년 동안 현금흐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고려 중이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이 앞으로 2~3년이 아니라, 20년, 30년 그리고 50년을 내다보는 것이

**푸드사이언스, 고급기술력 요구 대기업서 지원·투자 병행해야**

**로봇사이언스, 서비스업무 도와 일자리 ‘뺏다’ 아닌 ‘해방’ 개념**

**금전투자 넘어 스타트업과 협업 연내 ‘푸드테크 전용펀드’ 목표**

아닌가. 투자 금액의 일부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분야에 사용돼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제법 푸드사이언스 관련해서 임파서블푸드를 비롯한 유니콘기업의 경우는 이미 투자가 많이 됐다.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금이 회수되는 상황이라 아예 뜬구름 잡는 사업이 아니다. 롯데액셀러레이터의 경우 해조류 햄버거 패티 롯데리아, 사료용 곤충 음식물 처리, 구강청결제 음료 사탕에 투자했다.”

**- 푸드사이언스 성공한 케이스의 경우 해외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창업하기 좋은 나라다. 국내 청년 관점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이 많다. 푸드사이언스 관련해서는 청년이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다. 그야말로 사이언스기 때문이다. 청년 스타트업에 기필 수 없는 산업이다.

푸드테크는 박사급, 교수나 대기업에서 선도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다. 고급 수준의 기술력과 지식 그리고 경험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대기업이 지원 및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 원재료를 연구하는 회사의 경우 제약회사 수준의 회사라고 바라보면 되겠다. 임파서블푸드에 들어간 인력수준, 자본을 보면 제약회사급으로 투자가 됐다.”

**- 코로나19이후로 전 세계적인 투자가 줄었다. 푸드테크의 전망은 어떠한가.**

“코로나19이후로 푸드테크 관련한 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세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발전 속도가 가속했다고 보면 되겠다. 푸드테크 발전은 이미 다가오는 미래였다. 방향성은 유지되면서, 더 빨리 이뤄지는 것뿐이다. 대표적으로 로봇 사이언스가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과 안정성 이슈가 커졌기 때문이다.”

**- 푸드테크 분야에서 로봇사이언스 비중이 늘면 실업자가 늘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줄 수 있겠지만, 푸드테크 발전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푸드테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삶을 이해해야 한다. 서비스는 이직률이 높은 힘든 업무분야이다. 로봇사이언스는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

라 업무를 수월하게 만들어주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노동을 ‘뺏다’가 아니라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소비자로서도 힘들게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보다는 로봇을 활용하고 웃으면서 음식을 전달해주는 서비스를 보고 싶지 않겠는가.”

**- 스타트업 입장에서 롯데액셀러레이터의 차별점을 알고 싶다.**

“롯데액셀러레이터는 금전적인 투자에서 멈추지 않는다. 아무래도 롯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협업의 기회를 지원해준다는 점이 큰 강점이 아닐까 싶다. 컨설팅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연결해주면서 네트워크를 확장해준다. 대기업과 협력해나가기면서, 스타트업 전략과 같이 부족한 부분, 시장과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을 수정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본다.”

**- 푸드테크와 관련해 롯데액셀러레이터의 올해 목표가 있다면**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다. 내부적으로는 롯데 내 다양하고 큰 푸드계열사를 혁신하고 싶다. 워낙 다양한 푸드 산업이 있어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또 액셀러레이터차원에서 푸드테크 전용펀드를 구상 중이다. 올해 중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 대형마트·편의점서 비밀차단 마스크 판매

공적 마스크보다 물량 턱없이 부족 당분간 ‘마스크 줄서기’ 계속될 듯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비밀차단(KF-AD) 마스크 판매가 시작되면서 시중에 풀리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KF 등급 공적마스크와 비교하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마스크 줄서기’는 당장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비밀차단 마스크 판매를 시작한다. 이마트와 GS25는 지난주부터 마스크 판매를 시작했다. 가격은 500~600원 선으로 형성됐다.

서울지역 일부 약국에서도 비밀차단 마스크를 구할 수 있다. 공적마스크 물량의 75%를 유통해 온 의약품유통업체 지오영은 지난주 비밀차단 마스크를 주



CU 비밀차단 마스크 판매

요 거래처 약국에 소량 공급했으며, 이번 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공적마스크 25%를 유통해 온 백제약품도 이번 주 또는 다음 달 첫째 주부터 약국에 비밀차단 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이다. 물량 수급 상황을 감안해 전국 단위보다는 지방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밀차단 마스크를 구하는 경로가 다양해져 이달 초 ‘비밀차단 마스크 대란’ 때보다는 상황이 나아지

겠지만, 절대적인 공급량 자체가 적은 오프라인 상의 초고속 품절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밀차단 마스크 생산량은 6월 1주차 37만 장에서 4주차 181만 장으로 5배 가까이 늘며 하루 26만 장을 공급하고 있다. 하루 1000만 장이 공급되던 공적마스크의 2.6%에 불과하다. 비밀차단 마스크의 생산량이 공적마스크 때처럼 크게 늘지 않는 이유로 기존 보건용 KF 마스크에 비해 낮은 마진율이 있다. 원자재값이 상승한 것도 원인이 됐다. 마스크 주재료인 MB(멜트블론)필터, 부직포 등 원자재값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전보다 최대 8배까지 비싸졌다. 업체 입장에서 소비자가격 기준 1500원짜리 공적마스크, KF94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이 500원, 350원의 비밀마스크 제작보다 마진이 더 크다.

/조효정 기자

## 외식업 가맹점주에 ‘계약종료 선택권’

공정위, 외식업 표준가맹 계약서 개정

외식업 표준가맹 계약서가 ‘치킨·피자·커피·기타’ 4개 업종으로 쪼개진다. 가맹본부가 브랜드(영업 표시)를 바꾸면 가맹점주에게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의 가맹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외식업 표준가맹 계약서를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로 나눠 제·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새 표준가맹 계약서에서 4개 업종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는 ▲영업표지 변경 시 계약 종료 선택권 부여 ▲방문 점검 관련 가맹점주 권리 보호 강화 ▲필수 품목 관련 점주 권리 보장 ▲예상 매출액 제공 사실 확인 ▲개점 승인 절차 규정 신설 ▲점포 운영 안정성 제고 ▲가맹본부 내부 분쟁 해결 절차 신



치킨 프랜차이즈 BBQ(사장 윤경주)는 매장의 구성과 운영 전 영역에서 기존의 치킨가맹점 모델을 혁신적으로 차별화한 ‘BBQ치킨 레온’ 대치본점을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뉴시스

설 ▲통기 방식 명확화 등이다.

가맹본부가 영업 표시를 바꾸면 가맹점주는 계약 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과거 편의점 ‘엘지(LG)25’가 ‘지에스(GS)25’로, ‘훼미리마트(FamilyMart)’가 ‘씨유(CU)’로 영업 표시를 변경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극단 라하프 단원들



극단 라하프 연출 이한길

극단 라하프 단원 한소라

#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라 는 설 자리를 만듭니다

## 하나금융그룹 파워온임팩트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해서  
혼자만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자신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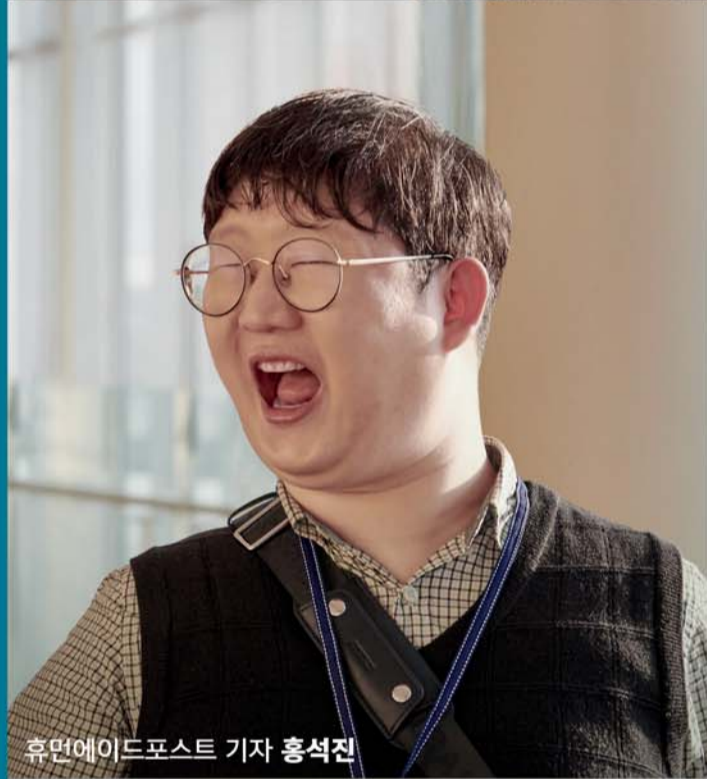
하나금융그룹은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발달장애인들의 강점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QR코드를 찍어  
[엄마의 졸업식]  
Full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홍석진



스프링샤인 도예가 이재영



스프링샤인 도예가 안운주



소소한 소통 사원 이주형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남해안 시대’ 박차... 10년간 20조 투입

##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 수립

전남 49개 세부사업에 10.7조 일자리 28만개 창출효과 기대 ‘전남 블루 이코노미’ 달성 탄력

전남 남해안권을 획기적으로 바꿀 새로운 개발 청사진이 나왔다.

전남도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전남 남해안권의 새로운 개발 청사진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계획은 지난 2010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화된 여건과 새로운 도정 정책, 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 반영해 재수립됐다.

전국적으로 3개 시·도 33개 시·군·구가 해당되며, 전남도는 목포 등 남해안권 16개 시·군이 포함된다.

전남도는 경남도, 부산시와 공동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96개 사업에 20조 5000억 원을 투입해 남해안 해안관광벨트를 비롯해 동서상생·협력벨트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남은 49개 세부사업에 10조7000억 원이 반영됐다. 49개 사업 중 12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담하고 나머지 37개 사업은 정부 각 주관 기관에서 추진되며, 전남도는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 ▲남해안 테마섬 개발 관광벨트 조성 ▲차세대 신소재 산업 연관단지 구축 및 미래형 산업 육성 ▲연륙·연도교 등 산업 및 관광 거점 연결을 위한 SOC 확충 ▲동서 해저터널 및 남도2대교 등 영·호남

상생협력 사업 등이 추진된다.

세부사업으로는 해양영양벨트 조성 사업을 비롯해 국가 종합비행성능 시험장 구축,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심진강 복합형휴게소 조성, 남해안 명품관광 육성, 호남선 남해안역 운영 등이 포함됐다.

전남 서남해안권은 섬·바다·갯벌 등 우수한 자연생태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심진강 문화예술벨트와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전남~경남

간 광역경제벨트 연계협력지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를 비전으로 하며, 주요 추진전략으로 해안권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 형성을 비롯해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조성, 산업 및 관광거점 연계 인프라 구축, 동서간 상생·협력벨트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변경 시행되면 45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조 원의 부가 가치 효과로 인해 2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남해안 시대 개막’을 앞당기고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달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남해안권을 발전시킬 전략이 새롭게 마련된 만큼 향후 국비확보와 함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oul.co.kr

## 안동시

### 세계유산 홍보 우표 제작

경북 안동시는 지난달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홍보를 위한 우표(사진) 140세트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우표 세트는 하회마을, 봉정사, 도산·병산서원 등 세계유산 4곳 경관과 세계기록유산 유교책판을 보관한 정판각 모습을 담은 14장으로 구성했다. 회의, 세미나, 박람회 등에서 세계유산을 알리는 데 우표세트를 쓴다고 한다.

김필상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홍보 우표를 통해 안동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 완도 보길도 해수욕장

### 블루플래그 인증 추진 나서

완도군이 보길도 예송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인증에 나섰다.

군은 블루플래그 인증을 위해 사전 평가 보고서 작성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블루플래그 인증이란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환경교육재단(FEE)이 안전, 환경교육, 수질, 주변 환경 등 4개 분야, 29개 평가항목과 137개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해수욕장에 부여한다. 1985년 유럽에서 시작돼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50개국의 해수욕장과 마리아나 블루플래그 인증을 취득했다. 국내에서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유일하게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 경북도, 사전 계약심사로 294억 절감

## 상반기 612건 원가심사서 성과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올해 상반기에 계약 전 원가심사로 294억원의 예산을 줄였다고 밝혔다.

도는 상반기 동안 도, 시군,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612건 6510억원에 대해 계약 전 원가심사를 진행했다.

예산 절감률은 평균 4.52%로 심사건수는 전년 동월 455건보다 157건이 많았고 절감액은 전년 동월 181억원보다 113억원이 늘었다.

시군이 345건 230억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7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북도청

도는 248건 60억원(20.2%), 출자출연기관은 19건 5억원(1.8%)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는 공사분야가 278건 291억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89%로 가장 많았고, 용역분야가 243건 30억

원(10.3%), 물품 및 인쇄분야가 191건 3억원(0.7%)이다.

올해부터는 5000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물품(여성기업,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확대해 96건 34억원에 대한 사전심사를 벌여 8600만원의 예산을 줄였다.

‘빛과 풍경 조성 사업’의 경우 잡철물 제작설치품의 수를 조정하고 수량 산출의 오류를 고쳐 3억7600만원을 줄일 수 있었다.

반면 건설폐기물 처리 때 건설협회 기준보다 처리비를 낮게 책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정원가로 예산을 증액하기도 했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하반기에도 꼼꼼한 심사와 이행실태 점검으로 예산의 적정성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준공 ‘초읽기’

### 이달 말까지 행정절차 완료키로

전국 최대 규모의 전원주택단지인 전남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30일 담양군에 따르면 연말 입주 예정인 680세대의 공동주택을 포함해 38만6000평, 1400여세대 규모의 첨단문화복합단지는 지난 2011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5년에 걸친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착공했다.

사업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부분준공을 추진해 1단계 구간의 단독주택용지 355세대 가운데 50여세대가 건축허가 후 활발히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업지 동측의 2단계 구간은 주요 공사가 완료됐으며, 입주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보완하기 위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7월 말까지 준



담양군 첨단문화복합단지

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담양읍 가산리에 조성되는 첨단문화복합단지는 현재 9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2022년 개원 예정인 페이스튼 국제학원 등의 교육시설과 함께 병원, 다양한 복합 상가 시설들이 들어오면 앞으로 담양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과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 경북도 내년 고교 신입생 448명 감소

### 구미 가장 많이 줄고 의성은 늘어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2021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정원을 확정·발표했다.

2021학년도 도내 고등학교 전체 입학정원은 2만3226명으로 올해보다 448명이 줄었다. 학교 수는 185교로 변동이 없으나 전체 인가 학급은 1021학급으로 1학급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구미가 348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포항이 129명, 영천이 4명 줄었다.

그러나 의성은 3학급 58명이 늘어 대조를 보였다.

교육청은 학급당 정원을 경주 등 19개 시군은 현재 기준 22명을 유지하되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22명보다 높은 지역 중 조정 가능한 일부 지역을 낮췄다.



경북교육청

이에 따라 일반계고는 구미 지역이 26명에서 24명으로, 특성화고는 구미와 칠곡지역 모두 25명에서 24명으로 줄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신입생 모집 때 1학급 편성 최저 인원을 14명에서 10명으로 완화했는데 이 기준을 내년에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 목포시·나주시·화순군·무안군

###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전남도는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와 접촉자가 발생한 목포시·나주시·화순군·무안군 4개 시군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나머지 18개 시군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최근 전남에서도 지역사회 전파를 통한 확진자 발생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기온까지 상승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전남도에서는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 승차 거부를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허용하도록 해왔다. /전남=양수영 기자

# ‘시민 제안’ 재활병원 설립 추진

### 서울시, 장애인공공재활병원 건립안 참여 플랫폼서 제안... 시장 직접 답변 전국 첫 공공어린이전문병원 조성키로

박원순 시장은 서울에 ‘장애인공공 재활병원’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타당성 용역 발주와 병원 부지 물색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장애인공공재활병원 건립안은 서울시의 시민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제안됐다. 시민 1120명이 공론에 참여해 박 시장이 영상으로 직접 답변했다.

박 시장은 “장애인 재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서울에 거주하는 39만 4000명의 장애인들이 제때에 꾸준히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재활병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는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 전문병원 조성, ‘서울형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확대, 장애청소년의 재활사업 확대, 시립병원 재활의학과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강북구 번동에 전국 최초의 공공어린이 전문병원인 ‘강북어린이전문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 제안에 답변하는 박원순 시장. /서울시

병원’을 2025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며 현재 세부 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 병원을 급성기 질환과 특수 질환 진료,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중점을 둔 250병상 규모의 전문병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 계획은 박 시장이 2018년 여름 강북구 삼양동에서 1개월간 ‘옥담방살이’를 한 후 강남북 의료격차 해소 방안의 하나로 구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보건·의료뿐 아니라 복지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내년에 동남권과

동북권에 1곳씩 새롭게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의 기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는 서남권의 보라매병원과 서북권의 서울재활병원이 지정돼 있다.

박원순 시장은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설립”이라는 이번 서울시의 답변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 나가는 자그마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생각과 참여가 정책의 결실을 맺고 일상을 바꿀 수 있도록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 사대문 안에 5등급차 못 들어온다

녹색교통지역 진입시 과태료 10만원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들어오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를 6월 30일부로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작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도심 지역운행을 막는 ‘녹색교통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

했다. 시는 7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과태료는 1일 1회 10만원이다. 3회 이상 적발되면 벌금이 20만원으로 불어난다.

시가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8 μg/m³로 전년 같은 기간 35 μg/m³과 비교해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등급 차량 통행량은 올해 4월 일평균 9360대로 38.1% 감소했다. /김현정 기자

# 3D로 보는 서울 지도, 1단계 구축 완료

### 부동산·실시간 교통 정보

서울시는 3차원(3D)으로 가상의 서울을 구현한 ‘스마트 서울 맵’(S-MAP)의 1단계 구축을 완료해 1일 공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서울 전역의 지형과 약 60만 동의 시설물을 3D로 만든 이 지도는 해당 장소의 부동산정보(공시지가), 실시간 교통정보 등 행정정보를 결합해 보여 준다.

특히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와 연계된 472개 CCTV 실시간 교통정보는 민간이 제공하지 않는 차별화된 서비스라고 시는 강조했다. 도서관, 보건소와 같은 공공건축물과 서울지하철 역사 내부 모습도 볼 수 있다.



PC용 가로버전 화면 구성

시는 이번에 지하철 역사 154곳, 공공건축물 54곳, 지하상가 2곳 등 210곳의 내부 모습을 공개하고, 8월까지 285곳을 추가해 총 495곳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2013년부터 청년일자리 육성 정책으로 추진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공공건축물과 지하철역사 실내정보를 구축해 왔다. /김현정 기자

# SNS마켓 주문취소·환불거부 피해 증가

### 서울시, 피해 금액 2억3156만원 응답자 32.9% “피해 경험있다” 신고 많은 플랫폼 ‘카카오토토리’

서울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경고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한 SNS 쇼핑 피해 현황에 따르면 1년간 총 신고 건수는 2002건, 피해 금액은 2억3156만원이었다.

신고 유형은 ‘주문 취소·반품·환불 거부’가 1671건(83.5%)으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와 연락 불가 및 운영 중단’은 185건(9.2%)이었다.

신고가 가장 많았던 SNS 플랫폼은 카카오토토리·톡채널로 80.4%를 차지했다.

인스타그램 피해 신고는 총 99건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 쇼핑 피해 유형별 통계자료〉

피해유형	상당건수	비율
주문취소·반품·환불 거부	1,671	83.5%
판매자와 연락불가 및 운영중단	185	9.2%
배송지연	70	3.5%
계약변경·불이행	34	1.7%
제품불량·하자	27	1.3%
기타	15	0.7%
합계	2,002	100%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료

로, 신고자 연령은 20대(48건)와 30대(46건)가 대부분이었다.

전자상거래센터가 일반 소비자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SNS 이용 실태 조사에서는 SNS 쇼핑 경험이 있는 1893명 중 32.9%인 623명이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54.4%가 ‘허위·과장 광고’를, 36.9%가 ‘정당한 구매 취

소 및 환불 거부’를 꼽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SNS마켓은 다이렉트 메시지, 메신저, 비공개 댓글로 구매가 이뤄져 폐쇄적 특성이 강하다”며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했는지 확인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한 판매자와는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파주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본격 추진

경기 파주시는 지난 30일 금촌새말지구(조합장 윤명자)와 문산 1-5구역(조합장 김진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009년에 조합이 설립된 ‘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건설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표류해 왔지만 지난 2018년 롯데건설㈜과 중흥토건㈜이 컨소시엄으로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사업규모는 파주시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약 14만 8000㎡에 지하 3층~지상 28층의 공동주택 5개 단지, 총 2583세대가 2025년에 준공될 예정이

다.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7년에 조합이 설립됐고 2018년 극동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사업규모는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1-1번지 일원 2만 5000㎡에 지하 3층~지상 29층의 공동주택 5개 동이며 총 668세대로,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문산3리 지구’도 오는 7월 중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앞두고 있어 지난 3월 27일과 4월 22일 각각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된 ‘금촌울목지구’ 및 ‘금촌2동 제2지구’와 함께 파주시는 5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부산시, 택시업계 간접지원... 109대 감차

### 5년간 총 729대 택시 감차 성과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올 상반기 택시감차보상사업을 통해 일반 택시 109대를 감차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감차에 투입된 예산은 30억 5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는 4억 2510만원, 시비는 15억 3690만원이며 부가세 경감세액은 10억 9000만원

이다.

당초 부산시에서는 2020년도 본예산에 60대 분의 국고보조금만 확보한 상태였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택시업계에 대한 간접지원의 일환으로 감차 대수를 늘리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49대분의 국고보조금을 추가 확보했다.

지난 4월 10일 일반택시 109대 감

차, 대당 감차보상금액 2800만원을 택시감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2020년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10억 9000만원을 배정받은 바 있다.

이로써 부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택시 감차를 지속적으로 추진, 총 729대를 감차(일반택시 649대, 개인택시 80대)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받은 금액은 2020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억 2000만원에 이른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오늘의 날씨

7월 1일 (수)

음력: 5월 11일

수도권 날씨

27 ~ 19℃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5:14 | 해질 / 19:57

연천 18/27, 동두천 18/27, 가평 17/27, 양평 18/27, 용인 19/26, 평택 18/27, 파주 18/27, 서울 19/27, 수원 19/26, 인천 19/25, 백령도 1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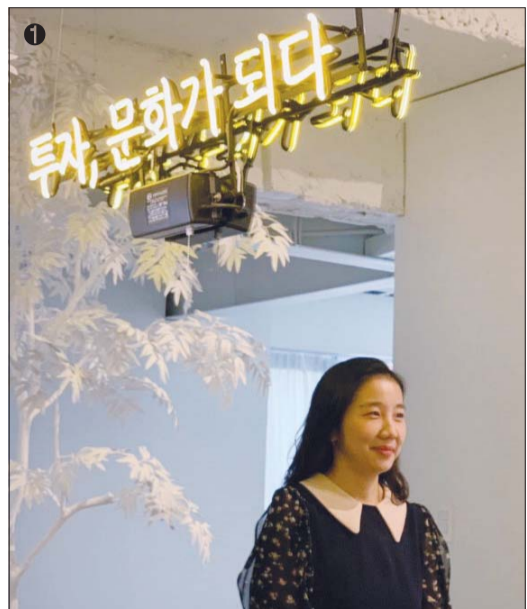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산업] 현대로템 장애통계적전차 수주 06



[라이프] 롯데홈쇼핑 새 브랜드 슬로건 발표 11



1 노유미 NH투자증권 전략기획실 과장. 2 NH투자증권 문화다방. 3 NH투자증권 '문화다방' 메뉴.

/손영지 기자

# “일상에 스며든 ‘투자’... 고객의 삶 채워주는 문화 되길”

## 새벽을 여는 사람들

### NH투자증권 전략기획실 노유미 과장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한 카페를 방문하면 커피와 디저트를 무료로 먹을 수 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유명한 '망원동내커피'와 유명한 빵집 '브레드랩'에서 제공받은 디저트다. 이 모든 걸 공짜로 제공하는 곳은 NH투자증권의 팝업스토어(짧은 기간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상점) '문화다방'이다.

문화다방을 방문하면 제일 먼저 넉넉한 좌석배치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띈다. 2층으로 올라가면 한 벽면 가득 전신거울이 있다. 잔잔한 조명과 내온사인이 더해져 이른바 '사진 스팟'이 될 만 하다. 고급스러우면서 트렌디하다는 생각이 드는 카페다. 문화다방을 기획한 노유미 NH투자증권 전략기획실 과장을 만났다.

보통 기업에서 운영하는 팝업스토어를 이용하기 위해선 일정한 조건이 있기 마련이다. 가령 '계좌 개설 시 커피와 디저트 무료' 같은 것. 하지만 NH투자증권의 문화다방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 휴대폰 번호로 본인 인증만 하면 커피와 디저트 쿠폰, 그리고 굿즈(기획 상품) 교환권을 받을 수 있다.

노유미 과장은 "문화다방은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전해주는 게 목표다. 투자를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건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주면서 계좌를 개설하라는 건 오히려 고객에게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일방적인 의도를 처음부터 내비치는 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높은 수준의 커피와 빵을 주면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앞으로 팝업스토어의 운영기간은 한 달 반 정도 남았다. 남은 기간 동안 회사의 목표에 대해 그는 "더 다양한 안내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했다.

증권사의 이름으로 카페가 운영되는 것은 업계 최초다. '투자'와 '커피'라는 이질적인 두 명사의 결합은 NH투자증권의 '투자, 문화가 되다'라는 브랜드 슬로건에서 비롯됐다. 투자와 문화 역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합이다.

노 과장은 "기본적으로 증권사의 마케팅이면 수익률이나 수수료, 상품과 서비스 위주로만 홍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진부한 마케팅 방법에서 벗어나고 싶었

다. 투자 문화가 되다는 슬로건과 함께 친숙한 마케팅 방법이면서 트렌디한 기법 중 하나인 '경험 마케팅'을 선택했다.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컨셉이 슬로건과 매치가 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작년에는 다이닝 레스토랑과 협업을 하면서 1차적인 경험 마케팅을 했다. 이후 두 번째 마케팅은 좀 더 고객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컨셉트의 체험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화다방의 운영 목표는 일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증권사 고객을 만나는 오프라인 영업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노유미 과장의 말처럼 문화다방은 단순히 커피와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고객에게 일상의

마케팅을 시도하려고 했다. 그런데 문화다방과 같은 시도를 해본 회사가 없었고, 회사 내부에서도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정보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늦어졌다. 브랜드 파트너사를 선정하고, 사이트를 만들고, 공간을 찾는 것 까지 모두 처음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NH투자증권만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힘들게 얻었고, 이후 포크 하나, 트레이 하나 모두 목수에게 제작을 맡겼다. 고객에게 굿즈로 제공하는 농산물 역시 쌀부터 티(tea)까지 수십 개를 시켜보고, 컨셉트에 맞는 상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로 얻는 보람은 "고객의 인정"이라고 말한다. 그는 특별한 스키팀이 없는 이상 문화다방에서 실시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노유미 과장은 "고객들이 오셔서 좋아해주시고 클래스를 더 듣고 싶다면 만족하며 돌아서는 모습에서 많은 힘을 얻는다. 고객에게 우리 회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했다.

때문에 그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6월에는 라이브 페인팅 등 아트 작가가 와서 같이 에코백을 디자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앉아서 듣는 강연보다 체험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런 점을 반영해 7월에는 체험 프로그램을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마이크 음량, 펜, 물, 온도 등 작은 거 하나에서 고객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의 문화마케팅은 계속된다. 이번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고 지방 고객들에게도 문화적 경험을 선물하는 기회를 만드는 게 또 다른 목표다.

노유미 과장은 "항상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다. 방향이 결정된 바는 없지만 경영진의 의지가 기반이 된다면 문화다방처럼 투자를 앞세운 마케팅보다는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의 마케팅을 이어나갈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또 지방이 소외된다는 일부 우려도 있다. 이번 문화다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효과를 증명한다면 지방에도 새로운 컨셉의 팝업스토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좋은 음악이 귀를 행복하게 하고, 좋은 음식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림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듯 투자는 고객의 삶을 채워주는 문화가 되길 바란다"면서 "고객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NH투자증권만의 마케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팝업스토어 '문화다방' 기획 주식투자 강연·와인수업 등 고객에 경험 전하는 것 목표

진부함 벗어난 문화마케팅 증권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다. 문화다방은 '카페'가 아닌 '살롱'이라고 그는 정의했다.

그는 "대규모 강연이 아니라 소규모로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이런 문화를 발전시켜가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주식투자 강연부터 와인 수업, 도장만들기 등 다양한 클래스를 통해 좋은 기억을 제공해드리는 공간이다"라고 말했다.

문화다방은 기존 공간을 임차한 것이 아니다. 바닥재부터 천장의 조명, 커피가 담겨져 나오는 컵까지 어느 하나 새로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 문화다방의 오픈 예정일이 생각보다 길어진 이유다.

노 과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준비기간이 길었다. 지난해 팝업 식당을 6, 7월에 열었고, 작년 말에 2차 문화